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제949호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BBQ 금융업 진출 저축銀 인수 추진

〈골든브릿지저축은행〉

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참여
140억 투입 경영권 확보 예정
소매·금융업 시너지효과 기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인수에 나섰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BBQ는 140억원 규모로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BBQ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BBQ가 금융업 진출에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SC금융지주 자회사인 SC캐피탈 인수전에도 뛰어들었으나 최종 후보에서 제외됐다.

BBQ는 BBQ치킨, 닭익는 마을, 치킨앤비어 등의 브랜드로 유명한 국내 1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다.

BBQ가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것은 막강한 유통망을 갖춘 소매업과 금융업이 시너지를 낼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금 대출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SPC그룹 역시 SPC캐피탈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전남지역의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11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PF대출채권 매각과 관련해 자본확충, 자산건전성 제고, 구조조정, 재무비율 개선 등 경영개선 협약을 금융감독원과 체결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유상증자를 포함해 이 같은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지난달 말 금감원에 제출했으며 현재 심사 중이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영업이 정지될 수 있고 가교저축은행(영업정지돼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상태)이 되면 부실 저축은행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에 경영정상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며 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수차례 증자 및 감자를 거쳐 회사 자본금이 280억원이며 골든브릿지가 87.0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자본이 전액 잠식됐고 부채총계(2274억원)가 자산총계(2172억원)보다 102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작년 3월말 8.39%에서 올 3월말 -7.49%로 급락해 금융당국의 건전성 기준 5%에 미달된 상태다.

제너시스 BBQ 관계자는 "그 같은 제안이 있어 검토를 한 것은 맞다"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쌀시장 전면개방…관세율 400% 안팎 전망

이동필 장관 "최대한 높은 관세율로 쌀산업 보호"
20년만에 수입 자유화…농민단체·야당 찬반 격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쌀 관세화'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쌀 관세율 등은 9월말까지 WTO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발표했다. 지난 20년간 미뤄 왔던 쌀 관세화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관세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 쌀 산업 체질개선과 농가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지만 일부 농민단체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농업협정상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수입쌀에 관세를 붙여 들여오는 관세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994년 타결된 우르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하기로 했으나 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 1995년부터 올해 말까지 20년간 관세화를 미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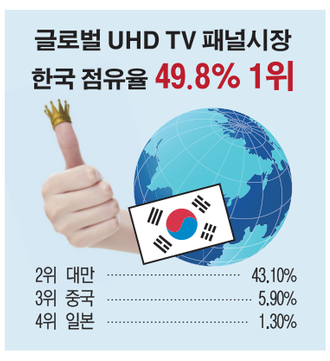
그러나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경우 '일시 의무면제(waiver, 웨이버)'를 획득해야 함에 따라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톤에서 최소 82만톤으로 늘어나 재정적 부담과 쌀 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되 고율 관세를 부과해 국내 쌀 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율 수준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 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계획이지만 내부적으로는 400% 안팎으로 책정, WTO와 협상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이뤄질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각종 협상에서 쌀은 양허 대상(관세철폐·축소)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 수준 현실화 △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지원을 위한 쌀 산업발전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고 올해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Graphic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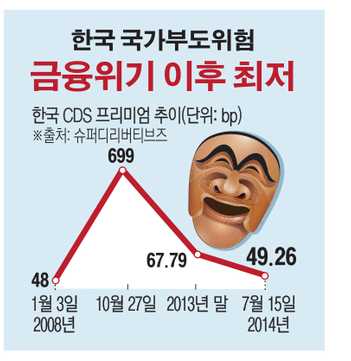
'UHD TV 패널' 한국이 선도

세계 UHD TV 패널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50%에 육박했다.

18일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출하량 기준 세계 UHD TV 패널 시장점유율에서 한국은 49.8%를 기록했다. 뒤이어 △대만 43.1% △중국 5.9% △일본 1.3%로 나타났다.

올 1월까지만 해도 이노룩스를 앞세운 대만의 점유율이 70%를 넘어섰으나 삼성과 LG가 제품 라인업을 보급형으로 확대하면서 지난 4월 처음 대만을 추월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국가 부도위험 6년반만에 최저

한국의 국가 부도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8일 금융정보 제공업체 슈퍼디리버티브즈(Super Derivatives)에 따르면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붙는 CDS 프리미엄은 미국 뉴욕시장에서 15일 종가 기준 49.26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8년 1월 3일(48bp) 이후 최저치다.

또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최고 정점이던 2008년 10월 27일(699bp)과 비교하면 15분의 1 수준이다. 이진영 기자 mint@



Star 금요섹션 17~24면

커버스토리
대중음악의 진화 '록페'



이형우 대표 ▶10



이석구 대표 ▶16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베이징 집 한채 살 돈으로
휴스턴에선 6채 구매 가능
월임대료 집값의 1% 수준
"투자비용 대비 10% 수익"

"中부자, 부동산 투자 美 휴스턴서 하라"

중국 베이징에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비용으로 미국 텍사스주 남동부의 휴스턴에서 6채의 집을 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17일(현지시간) 중국인민망이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부동산협회가 두 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비교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일반적으로 베이징에서 집 한 채를 구매하려면 300만 위안(약 5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같은 비용으로 미국 휴스턴에서는 6채의 집을 살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은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휴스턴 현지의 부동산 중개업자도 "현재 휴스턴과 베이징의 부동산 시세를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가능한 일이다"며 보고서 내용에 신빙성을 더했다.

휴스턴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진진루는 "베이징의 집 1채 가격이 300만 위안이다. 이 돈이면 휴스턴에선 집 6채를 구매하고 임대할 수 있다"며 "휴스턴 월평균 임대료는 집값의 1% 정도이므로 주택 구매 투자비용 대비 평균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부동산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 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량이 35% 증가했으며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투자자들의 투자액이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미국이 캐나다에 이어 중화권 투자자가 관심을 두는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중국인 중 76%가 현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다. 미국 CNN 머니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중국인 중 거주 목적인 사람은 40%에도 못 미친다. 중국인이 자식의 유학을 위해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있으나 미국 내 부동산 투자가 중국인으로서는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지정학적 불안 더블악재, 글로벌 증시 '직격탄'

이·팔 분쟁-말레이여객기 피격
다우지수 1% 가까이 떨어져
코스피 하락 출발·환율 상승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격추 사태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전격 투입한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161.39포인트(0.94%) 내린 16976.8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3.45포인트(1.18%) 하락한 1958.12, 나스닥종합지수는 62.52포인트(1.41%) 하락한 4363.45로 마감했다. 큰 변화 없이 조용하던 이날 뉴욕증시는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격추됐다는 소식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힘을 얻으면서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물 금 가격은 1.3% 상승한 온스당 1316.90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국채도 강세를 보였다.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2.48%로 5bp(1bp=0.01%P)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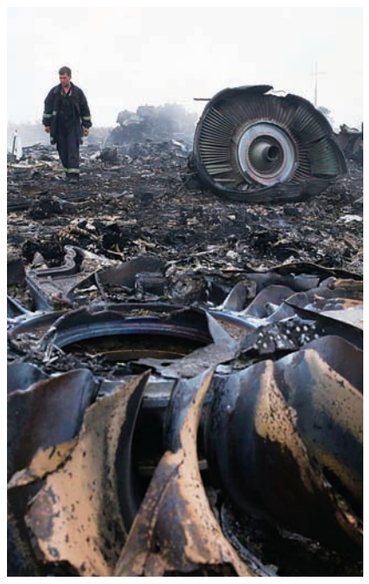
승객과 승무원 295명을 태우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여객기가 격추된 지점은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이다.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측은 서로 상대방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전일 2020선을 넘어서며 연중 최고점을 찍은 국내 증시는 이번 사태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경기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우려가 지수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날 오전 9시 20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9.50포인트(0.47%) 하락한 2011.40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스닥 역시 0.46포인트(0.08%)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4.50원 오른 1033.60원을 기록하고 있다.

사흘 연속 사자에 나섰던 외국인이 순매도세로 돌아서며 200억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다. 기관도 114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313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서명찬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정학적 불안감은 높아졌지만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다만 국가 간 대립 양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17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경에서 약 5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상공에서 미사일 피격에 격추된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보잉777 여객기의 잔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도네츠크/로이터연합뉴스



취임 1주년 맞은 임영록 KB금융 회장

"더 이상 물러날 곳 없어 마지막 각오로 KB 쇄신"

정보 유출·집안싸움… 전 직원에 사과편지 보내
"반면교사 삼아 솔선수범 '사람·실천'으로 위기 타개 '향상일로' 실천해 나가자"

임영록〈사진〉 KB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로 그는 지난 1년간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터라 그 흔한 직원 조회도 열지 않았다. 대신 임 회장은 KB가족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공유하기 위해 펜을 들었다.

그의 편지는 '사과'로 시작됐다. 임 회장은 "무엇보다 임직원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며 "KB인(人)으로서 사기가 떨어지고 자긍심이 실추된 것에 대해 그룹의 회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서문을 열었다.

현재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을 비롯해 120여명의 KB금융 임직원들은 고객정보 유출과 주전산시스템 교체 논란,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등 횡령 등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뇌부의 '집안싸움'까지 외부에 실시간 노출되면서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다.

임 회장이 취임 1주년을 편지로 갈음한 것은 불안해하는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함이다. 제재 수위가 어떻게 결정날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KB금융의 성장은 지속된다는 의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다.

그는 "우리는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고객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모두가 하나 돼 새로운 KB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직원들의 사기도 북돋웠다.

임 회장은 편지에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사람'과 '실천'뿐이란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향상일로(向上一路)'를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재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임 회장은 "새롭게 인수한 KB캐피탈과 LIG손해보험을 통해 비은행 부문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함으로써 금융 전 분야에서 일관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그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금융업 넘보는 윤홍근, 藥될까 毒될까

〈제너시스 BBQ 회장〉

가맹점주·자영업자 대상 대출 시너지 효과 기대
경험 전무·부채비율 815% 재무상태 부담 우려



지난해 SC캐피탈 인수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제너시스 BBQ 윤홍근〈사진〉 회장이 또다시 금융업체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다. 인수 대상은 최근 재무구조 악화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다. 제너시스 BBQ 관계자는 "세부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했다"면서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윤 회장의 골든브릿지 인수 검토설이 알려지자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가 그의 프랜차이즈 사업과 시너지를 낼지, 아니면 독이 든 성배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회장이 지난해 SC캐피탈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윤 회장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 당시 금융권에서는 유통망을 갖춘 소매업과 금융업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표출됐다. BBQ가 가맹점주와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한 개인신용대출과 사업자금 대출 등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심지어 배달용 오토바이와 업주 차량 등에 대한 리스와 할부금융 사업도 언급됐다.

윤 회장도 SC캐피탈 인수 참여 배경에 대해 "점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 가맹점에서는 어려운 경기 상황 때문에 사업자금 융통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할 정도로 금융업 진출에 부풀어 있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금융업 경험이 전무한 윤 회장이 제대로 금융사업을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팽배했다. 당시 SC캐피탈의 매각이 성사됐더라도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윤 회장의 손을 들어줬을지는 의문이다.

현 상황도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BHC 매각대금 1200억원의 실탄을 보유했다고는 하지만 제너시스 BBQ의 재무상태로는 금융업 진출이 여전히 부담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너시스 BBQ의 부채비율은 815%다. 유동비율 역시 제너시스 BBQ는 2년 연속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동비율은 그 기업의 단기 지급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단기채무지급능력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통상 100%를 기준으로 한다. 자본잠식률의 경우에도 2012년 63%에서 2013년 55%로 줄어들었지만, 지속된 순적자로 인한 자본잠식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영업손실도 이어지고 있다. 작년 제너시스 BBQ의 매출액은 1752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영업이익은 2012년 53억원에서 35억원으로 30% 이상 급감했다. 또 4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를 지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윤 회장이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금융업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근까지도 부채비율이 높고 손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실 저축은행을 떠안는다는 건 사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대형마트 CEO들 "힘내자! 대한민국"

실적악화 타개 위해 응원 메시지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얼어붙은 소비 심리 녹일 우리의 뜨거운 열정으로 국민 '氣'를 살립시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혼자서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멀리 가는 것이 중요 행복한 일터 만듭시다"

국내 대형마트 CEO들이 실적 악화에 침체된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뭉쳐 힘을 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면서 임직원들에게 기(氣)를 불어넣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는 강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17일 사내 게시판에 '힘내자 대한민국! 홈플러스 사상 최대 기(氣)세일!' 제목의 글을 올렸다.

도 사장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경제사항은 어렵고, 소비심리는 얼어붙어 있다. 혹시나 우리의 열정도 함께 차가워지진 않을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이번 여름, 사상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준비했다. 이는 할인행사 그 이상의 의미"라면서 "장사 이래 처음으로 여름 시즌에 대규모 세일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의 기를 살리는 데 홈플러스가 먼저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도 소통의 자리를 직접 마련해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다. 노 사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세월호 참사 영향 등 잇따른 악재에 실적이 악화되자 작년 10월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할인행사인 '통큰 세일'을 앞둔 이달 초에는 'CEO 메시지'를 통해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노 사장은 메시지에서 "혼자서 빨리 가는 것보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모두가 이를 통해 성장하고 일할 맛이 나는 행복한 일터로 만들어 보자"고 전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겨울에 진행하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한여름에 마련하는가 하면 할인율을 최대 70%까지 대폭 올리는 등 대형 행사를 잇달아 마련했지만 기대만큼 실적이 좋지 않다"면서 "무거운 분위기를 걷어내기 위해 유통 CEO들이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미디어통 MEDIATONG
www.mediatong.com


포트폴리오인재관
이제 스킬과 이력서, 포트폴리오까지 한 눈에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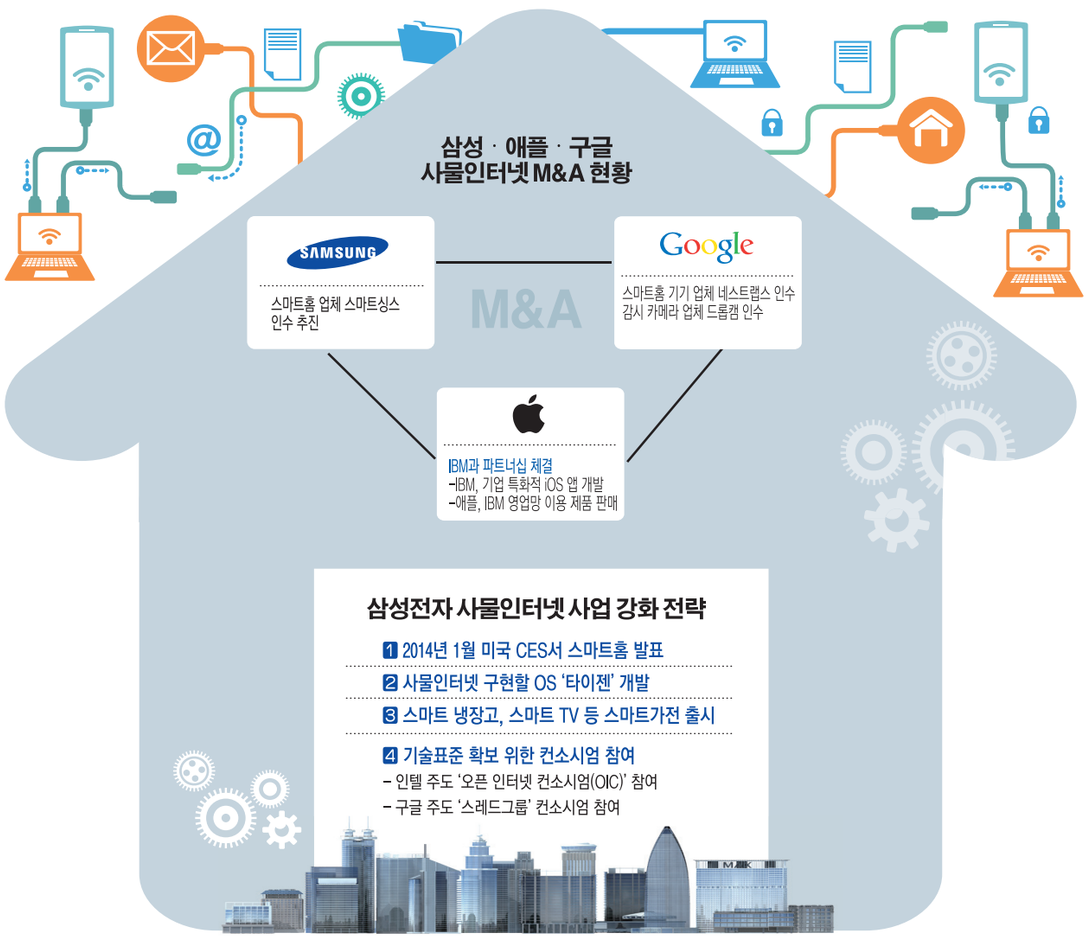

기업PR관
미디어 기업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방송가맛집
우리회사, 내가 꿈꾸는 직장의 맛집을 소개합니다.


교육기관 인재정보
우리 교육기관의 우수 인재를 소개합니다.

이제 미디어통을 스마트폰에서 만나세요! 미디어통 앱 다운로드
고객센터 02)783-1580 | helpdesk@mediatong.com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주)미디어네이티브

“사물인터넷 주도권 잡는다”…삼성 ‘또 하나의 신화’ 준비



“IM부문 미래는 IoT”…‘퍼스트 무버’ 플랜 착수

이재용 부회장, 글로벌 기업 CEO 잇따라 만나 논의
세계 최다 웨어러블 기기 판매…시장선점 효과 기대
작년 4월 출시 ‘스마트홈’ 시장 연평균 19% 성장 전망

삼성전자가 한계 돌파의 해법으로 ‘사물인터넷(IoT)’을 낙점했다. 특히 성장 슬로건인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숨 가쁘게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사물인터넷을 선택한 것은 이미 경쟁력 있는 사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제 막 조성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사물인터넷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에서부터 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 자동차, 건물, 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엔 만물인터넷(IoE)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행하도록 명령하는 수동적인 시스템이 아닌,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판단·실천하는 게 특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8일 “IM(IT·모바일) 부문의 미래는 사물인터넷에 달렸다”며 “웨어러블 기기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는 IM 부문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사물인터넷을 곧 삼성전자의 미래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잇따라 만난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올 초 사물인터넷 글로벌 1위 업체인 시스코의 존 챔버스 회장과 만났고, 이달 초엔 미국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의 케빈 플랭크 대표와 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업계는 이 부회장이 삼성 성장동력의 다른 한축인 자동차 전장부품을 직접 챙겨온 만큼 이 같은 행보를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과 플랭크 대표의 만남을 애플과 나이키의 웨어러블 기기 동맹에 맞서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미 사물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 이는 경쟁사들에 진입장벽이 될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되는 부문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어’, ‘기어 2’, ‘기어2 네오’, ‘기어핏’, ‘기어 라이브’ 등 업계 중 가장 많은 웨어러블 기기를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독자적인 운영체제(OS)인 타이젠을 개발해 소프트웨어(SW) 경쟁력도 확보했다. 갤럭시 1등 신화로 증명된 우수한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도 삼성전자의 강점으로 꼽힌다.

웨어러블 기기가 삼성전자 사물인터넷 사업의 첨병이라면 ‘스마트홈’은 본진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4’에서 스마트홈 솔루션을 선보였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홈은 가전 및 TV, 스마트폰 등 가전-모바일 기기들을 통합 플랫폼으로 연동시켜 클라우드와 서버가 실시간으로 내용을 교환하고 처리한다. 삼선전자는 지난 4월 11개국에 스마트홈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홈 시장은 2019년까지 1115억 달러(약 114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SA는 스마트홈 시장이 올해 480억 달러(약 49조원)에서 연평균 19%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이 초기 시장을 주도한 이후 서유럽과 중국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삼성·애플·구글 삼각경쟁 ‘격돌’

시장 선점 위해 경쟁기업과 손잡고 해외유수기업 인수 열올려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삼성, 애플, 구글이 시장 선점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부족한 역량은 협약, 인수·합병(M&A)을 통해 채우는가 하면, 경쟁 관계인 상대 기업과 손을 잡는데도 주저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최근 인텔과 구글이 각각 주도하는 사물인터넷 컨소시엄(OIC, 스레드그룹)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텔이 이끄는 오픈 인터커넥트 컨소시엄(OIC)에는 아트멜, 브로드컴, 델, 윈드 리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다. 이 조직은 IoT 시대를 대비해 운영체제와 서비스 공급자가 달라도 기기간의 정보 관리, 무선 공유가 가능토록 업계 표준기술에 기반을 둔 공통 운영체계를 규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인텔 등 OIC 참여 업체들은 사물인터넷의 발전에 필요한 기기간 통신 규격과 오픈소스,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기술 자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인텔에 이어 구글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스레드그룹에도 참여한다. 스레드그룹은 새로운 인터넷규약(IP)을 기반으로 한 무선 통신망 프로토콜을 통해 상호 호환이 가능한 사물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됐다. 여기에는 네스트랩스, 실리콘랩스, 프리스케일, ARM, 예일시큐리티가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사물인터넷 관련 특허에서 경쟁력을 갖춘 40여개 기업을 인수한 미국의 시스코시스템즈와 특허공유를 맺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와 시스코는 기존 보유 특허는 물론 향후 10년간 출원되는 특허까지 공유키로 했다.

삼성은 동종 업계 기업들과 협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유수 기업들을 인수하는 데도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스마트홈업체 스마트싱스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에 제시한 인수 금액은 2억 달러(약 2000억원)다.

자체 운영체제(OS)를 보유한 구글과 애플 역시 IoT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구글은 최근 네스트랩스를 32억 달러(약 3조2000억원)에 인수했다.

애플은 IBM과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헬스케어, 여행, 금융, 통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공동 개발하는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증권가도 IoT 바람…관련株 ‘휘파람’

효성ITX 주가 연초대비 227% ‘껑충’
보안·통신단말기 업체도 상승 기대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사업 육성 강화에 나선 가운데 증시에서도 사물인터넷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난 8일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 오픈 인터커넥트 컨소시엄(OIC, Open Interconnect Consortium) 구성을 결정한 이후 스마트홈 전문업체인 스마트싱스의 인수 협상에도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LG전자의 ‘홈챗’을 비롯한 IT사업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에 대한 장밋빛 전망까지 가세하며 관련업체들이 R&D 투자를 늘리는 등 사업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효성ITX, 기가레인, 코콤, 에스넷, 한국전자인증, 엔텔스, 파수닷컴, 알파칩스, 모다정보통신 등 사물인터넷 관련주들도 성장 기대감을 발판으로 휘파람을 불고 있다.

효성ITX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들어 연초 대비 지난 17일까지의 주가상승률은 227.27%에 달했다. 무선주파수(RF) 커넥티비티 부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가레인은 같은 기간 동안 123.08% 급등세를 나타냈다. 홈네트워크 전문업체인 코콤은 118.92% 상승했고, 삼성전자에 사물인터넷 관련 기본망을 공급하는 에스넷은 111.49% 올랐다.

사물인터넷 관련주 (단위: 원, %)

	1월 2일	7월 17일	주가상승률
효성ITX	5500	18000	227.27
기가레인	4550	10150	123.08
코콤	2695	5900	118.92
에스넷	2220	4695	111.49
한국전자인증	2525	4135	63.76
엔텔스	11650	18350	57.51
파수닷컴	5330	8330	56.29
알파칩스	4590	6160	34.20
모다정보통신	6200	7920	27.74

※출처: 한국거래소

이 밖에도 기기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전자인증, 사물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텔스,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보안업체인 파수닷컴, 시스템 반도체개발 전문업체인 알파칩스, 무선데이터 통신 단말기 업체인 모다정보통신 등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화지능원은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가 지난해 2조원에서 2022년 약 23조원으로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사물에 네트워크 통신기능을 부여하는 기술적 기반 및 창조적 사고 마련을 통해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가능하다”며 “기기·서비스 중심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장청 기자 jcha@



"WTO협정 범위안에서 최대한 고관세율"

20년만에 빗장 풀린 쌀 관세화

"의무수입 물량 부담 시장 붕괴 결국 시장개방 외엔 대안없다"

"식량주권" 전농 등 강력 반발

눈치보기에 후속대책도 못내놔



정부가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본부 소속 회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습적 쌀 전면 개방 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며 쌀을 뿌리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18일 정부의 쌀 시장 개방 공식 선언으로 20년 동안 굳게 닫혔던 빗장이 열렸지만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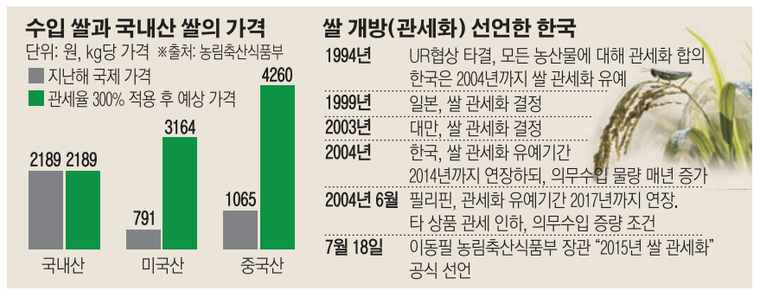
이번 정부의 쌀 시장 개방 선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치권과 정부의 고질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줘 세월호 참사 이후 거세게 불던 국가개조가 무색하다는 평가다.

사실 이날 정부의 발표 일정은 007작전을 펼치듯 쉬쉬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날 국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드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권도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와 자신의 표밭만 의식해 아무런 대안 없이 협의만 요구한 채 무조건적 반대만 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은 전농회의 거센 반발에 눈치만 보며 '식량주권' 논리로 반대만 했지 쌀 관세화 유예 시 대처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동필 장관은 "내년 쌀 관세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쌀 관세율 400% 안팎에서 WTO와 협상하겠다는 방안을 이미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는 지난 6월말 쌀 시장 개방 선언과 이에 대한 농민 보호 대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농민의 거센 반발로 쌀 시장 개방 선언을 미뤄 이날 발표했다.



이미 정부는 쌀 관세화 추가 유예 시 2배가 넘는 의무수입물량(MMA)을 받는 부담으로 국내 쌀 시장이 붕괴할 수밖에 없어 쌀 시장 개방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권과 전농회가 주장하는 정부의 농민 설득 부족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민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으로 뒤로 미뤘기 때문에 공청회나 설명회 시간이 크게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농회도 공청회나 설명회 때 정부의 설명을 듣기보다 무조건적 반대로 일관하거나 아예 설명회 자체를 열지 못하도록 한 책임을 안고 있다.

정부도 눈치 보기에 바빠 이번 쌀 시장 개방 후속 조치를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정부가 발표한 후속 대책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결국 지난 20년간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미뤄만 왔지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남은 2개월 동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400% 안팎의 고관세율도 사실 미국 등 쌀 수출국이 주장하는 200%대 관세율과 차이가 커 정부가 WTO 협상에서 지켜낼지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후속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지위로 올라서 23~46% 정도 관세율을 더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쌀 시장 개방에 관여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칫 불똥이 튈까 봐 뒷짐만 지고 있다. 이들 두 부처는 이번 쌀 시장 개방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이라며 농식품부의 의견을 무조건 지지하겠다는 의사만 밝힌 채 모든 책임을 이동필 장관에게 떠넘기고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

한중 FTA 12차협상 진전

서비스·투자 분야 쟁점

자유화방식 원칙적 합의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에 큰 진전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제12차 협상을 지난 14일부터 5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각각 수석대표로 해 협상을 진행했으며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를 논의했다. 이 중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중국 측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 기간, 우리 측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양측은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던 자유화 방식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서비스 관련, 그간 우리 측은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중국 측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협정 발효 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투자 자유화 요소 반영 부문 또한 협정 발효 시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 의제 및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고 후속 협상을 통해 투자 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 및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은 지난해 11월 네거티브 방식 채택을 통한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확대 정책을 천명하고, 이에 따른 국내법 정비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등 제반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후속 협상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국세청 자문위, 현안마다 '우왕좌왕'

일 터지면 일단 "신설"

업무 중복에 효율성 '뚝'

박근혜 정부 들어 국세청이 현안 대응을 위해 잇따라 꾸린 자문위원회가 업무 중복으로 효율성은 떨어지고 혼선만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세무조사의 경우 김덕중 청장 취임 후 신설한 자문위 3곳 모두 소관 기능으로 두고 있지만, 어느 위원회의 의견이 우선되는지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보고서'를 냈다.

기재위 설명에 따르면, 국세청 내부의 15개 위원회 가운데 자문위 성격의 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 지하경제양성화자문위, 세무조사감독위 등 3곳이다. 모두 2013년 신설됐다.

이 중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행정 최고의 자문기구로, 전·현직 고위층의 비리연루 사건이 이어지자 청렴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기존 국세행정위를 확대 개편했다. 세수관리 현황,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방향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자문·심의하며 산하에 세무조사분과위를 비롯한 4개의 실무분과위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국세행정개혁위 출범 후 불과 한 달 남짓 지나 세무조사감독위를 새로 만들었다. '마구잡이식' 세무조사라는 비판에 대응키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까지 심의를 맡겼지만, 총리 후보에 올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초대 위원장을 지내면서 대기업 법인세 취소 소송을 맡았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위원회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부터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원칙에 대한 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지하경제양성화자문위도 가동했다.

기재위 전문위원들은 "각각의 자문위는 소관 사항에 관한 심의권을 갖고 있지만 소관 사항이 중복되고 그 구분이 분명치 않은 측면이 있어 자문위 간 심의 내용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어느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우선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김미영 기자 bom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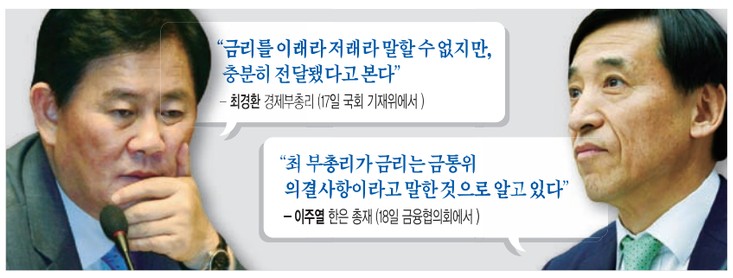
서로 존중한다던 崔-李, 만나기 전부터 '삐걱'

〈최경환 부총리〉 〈이주열 한은총재〉

최 "제 생각 이미 시장 전달"

이 "금리인하 효과 부정적"

내주 회동 결과에 관심 집중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 부총리가 금리인하 '압박' 강도를 높인 가운데 이 총재는 금리결정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금리는 이 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관계인들은 관련 발언을 꺼려 한다. 최 부총리도 금리인하를 누구보다 바라면서도 줄곳 직접적 발언을 피해 온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희수 국회 기재위원장이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리와 재정정책이 같이 움직여 줘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재정정책 위주"라는 질의에 대해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제 생각은 이미 시장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거시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 왔다. 사실상 금리인하를 통해 통화정책을 보다 완화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 결정의 독립성으로 맞받아쳤다.

이 총재는 18일 오전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금융협의회에서 "최 부총리가 앞서 기준금리가 금통위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는 당연한 발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총재가 이틀 전 금리인하의 부정적 효과를 언급한 바 있어 금리 향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 총재는 최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 16일 한 포럼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은 물론 소비여력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 두 수장의 행보를 주시하며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여 가고 있다.

홍석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최 부총리는 올해 추경이 없으니 대신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는 둘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리인하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이르면 내주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인 가운데 최 부총리가 이 총재에게 어떤 방식으로 금리인하 '구애'를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진영 기자 mint@

"주택시장 불안감만"… 2주택자 전세 과세 결국 철회

임대차 선진화 당정 합의

세수 도움 안되고 여론만 악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하고 전문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입법을 추진키로 당정 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2주택자 전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필요하게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준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한동안 살아나던 주택거래가 침체되는 양상"이라며 "2주택자 과세의 실제 세금은 얼마되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세금을 전세가격에 전가해 거래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 대책을 내면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전세 과세는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6월 재보완 대책에서는 전세 과세를 추후 논의과제로 남겨 뒀다.

이번에 당정이 2주택자 임대소득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지난달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두 번째 수정한 이후에도 시장 반응이 좋지 않고 2주택 전세 소득에 과세해도 조세수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빠른 법 통과를 위해 여당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은 전세 과세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오는 8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세월호 유가족 간절한 소망에도…

與野 '수사권' 지루한 공방

특별법 7월 임시국회 넘어갈 듯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단식을 이어가는 희생자 유가족의 간절한 소망에도 정치권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양당은 17일 각각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해체를 선언하며 지금까지의 논의도 백지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초 목표로 삼았던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양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TF는 수사권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엇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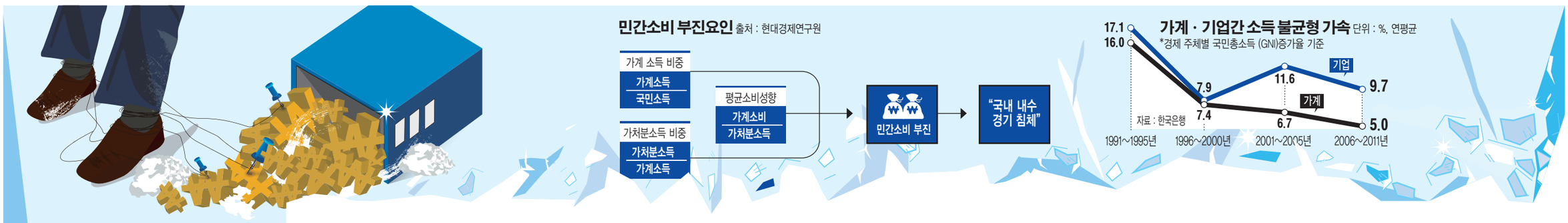
야당에서 동행명령권에 더해 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자 새누리당은 기소독점주의를 위배하는 등 기존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신 상설 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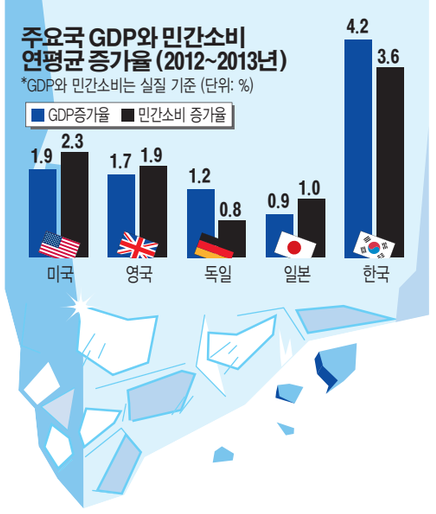
세월호 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 홍일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충분히 조사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특수사법경찰권을 통해 여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 조사도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홍 의원은 "특사경들은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그 분야만 하기 때문에 크게 인권침해 권한 남용 여지가 적은데 조사위 소속 특사경은 일반 경찰관과 똑같은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 제도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법 TF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전해철 의원은 이날 "수사권 문제와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아 더는 협상의 의미가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위원회의 조사권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새정치연합과 가족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주장만을 반복해 왔다"고 밝혔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소비불능' 빠진 가계…내수부진이 성장 '발목'

민간소비 비중 10년새 5.1%P 줄어
가처분 소득·소비성향도 모두 하락
가계는 쓸 돈 없고 기업은 현금비축
전문가 "임시방편적 단기부양보다 가계소득 증대 근본대책 서둘러야"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로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내수 살리기'를 전면에 내걸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0%에서 3.8%로 0.2%포인트 하향조정하며 '내수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수출 실적이 곧 경제 성적과도 같았던 과거와 달리 내수 부문이 국가경제 성장률의 발목을 붙잡은 셈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내수 부문을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보루'로 꼽는다. 정부의 재정지출 여건은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수출도 대외여건의 악화로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선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내수마저 침체된다면 경기부진이 '소프트패치'를 넘어 '더블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프트패치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현상을 말하지만 더블딥은 경기가 회복력을 다시 상실하는 심각한 상황을 말한다.

◇'소비불능' 빠진 가계… 쓸래야 쓸 돈이 없다 = 전문가들은 내수 침체의 원인을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진행된 가계소득의 정체와 그에 따른 가계소비의 심각한 부진에서 찾는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수출기업이 좋은 실적을 기록할 때는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던 고질적인 불균형 문제가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표면화됐다는 시각이다.

2005~2007년 연평균 4.7%였던 가계소비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감소했다가 2010년 4.4%로 잠시 오른 뒤 2011년 2.7%, 2012년 1.2%, 2013년 1.4%로 급격히 하락했다. 경제성장률이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3%인 것과 비교하면 가계소비 증가가 경제성장 속도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된 셈이다. 소비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히 '돈이 없어서'다. 우선 들어오는 돈 자체가 줄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2003년 55.7%에서 2013년 50.6%로 10년 새 5.1%포인트 감소했다. 다시 말해 지난 10년간 나라 전체의 돈벌이에서 가계가 가져가는 파이가 10분의 1이나 줄었다는 뜻이다. 여기에 '번 돈 가운데 실제 쓸 수 있는 돈'(가처분소득)과 '씀씀이'(소비성향)도 지난 10년간 모두 크게 하락했다. 가계가 번 돈의 대부분은 가계부채 상환, 불안한 노후대비, 자녀의 사교육비 등으로 사실상의 고정지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쓸래야 쓸 돈이 없는 것이다.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오석 전 부총리의 1기 경제팀에서는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한 가지 접근방식이었다. 하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취업자 수는 늘렸지만 임금상승률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 전체적인 구매력 상승 효과가 미비했던 것. 저임금을 받는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등의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기변동으로 이들의 실직이 뒤따르는 경우 민간소비가 더욱 정체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경제 단물 기업쏠림 심화… 가계소득 늘려야 = 가계로 향하는 돈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GDP성장의 단물이 기업으로 쏠렸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 정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법인의 가처분소득 증가율(9.4%)은 개인(5.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사실 투자와 고용을 통해 정상적으로 시장에 풀리기만 한다면 기업이 개인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내내 정부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접근 방식이 '기업투자 유도'에 초점이 가 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업으로 들어간 돈은 고스란히 금고에 쌓였다. 투자는 정부의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최근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적절히 활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 가계에 돌려주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임에도 지금은 가계가 빌려 쓰고(가계부채) 기업이 저축(사내유보금)하는 게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과도한 현금비축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단기부양을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에 잠겨 있는 자금을 가계 쪽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같은 구상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따른다. 현 시점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촉진보다는 서민의 구매력을 높이는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시각이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그동안 공급주의 경제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2014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2기 경제팀의 과제

1부 우려되는 일본식 불황
① 뇌사에 빠진 실물경제
② 깊어지는 저성장의 늪
③도 넘어선 양극화
④ 올해도 꽉 막힌 투자
⑤ 엄동설한 소비심리
⑥ 수출마저 위태롭다
⑦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⑧ 벼랑에 몰린 中企
⑨ 3低에 빠진 금융산업
⑩ 기력 잃은 자본시장
⑪ 커지는 G2 리스크
2부 이것이 문제다
3부 이렇게 풀자

카드이용 '뚝' 불황 장기화 해외직구 '쑥'

#주부 A씨는 얼마 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등 미국 세일 행사를 눈여겨보고 있다. 최근 수입된 태블릿 PC의 경우 미국 판매가는 350달러(약 37만원)인 반면 국내에서는 70만원에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집안이 넉넉한 직장인 B씨는 결혼을 앞두고 최근 백화점에서 혼수장만을 했다. 그는 800만원대의 유럽산 프리미엄 냉장고와 화면이 오목하게 휜 TV를 구매했다.

소비심리 위축 가계흑자율 상승
실속형 상품·고가 명품 '양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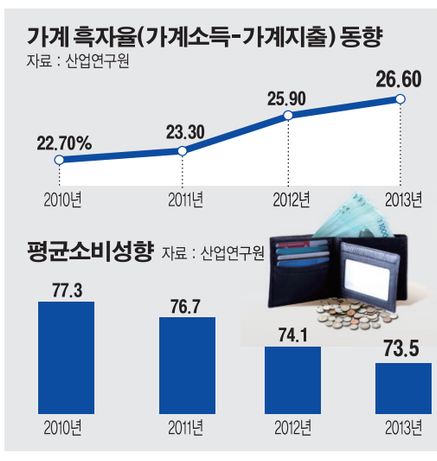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불황형 소비 행태가 심화되고 있다. 카드 이용실적 평균액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해외직구와 실속형 상품은 인기를 얻고 있다. 반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는 명품 소비 등이 늘고 있다. 불황이 지속될수록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흑자율(가계소득-가계지출)이 2010년 22.7%에서 2011년 23.3%, 2012년 25.9%, 2013년에는 26.6%로 점점 상승했다. 가계 흑자율이 늘고 있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소비는 증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실제 2010년 77.3이었던 평균소비성향은 2011년 76.7, 2012년 74.1를 거쳐 지난해에는 73.5까지 떨어졌다.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카드의 결제 건당 이용실적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5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전체 카드 평균 결제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감소한 4만5319원으로 나타났다.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유로 해외카드 사용률은 높아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거주자의 해외카드 이용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28억2000달러로 집계됐다. 원화 절상 등 때문에 국내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불황형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통업체는 실속형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 오픈마켓 업체는 중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한 대형 마트에서는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용기 기획전'도 준비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내수침체를 우려할 만큼 소비를 줄이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프리미엄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600만~700만원에 달하는 고가 프리미엄 냉장고 판매 대수가 한 달 만에 1000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올 1~4월 한 대당 1억50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차량 판매가 지난해의 2배 가까이 늘어날 만큼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





저금리에… '확정금리' 끊는 보험사

더케이손보·흥국생명 등 역마진 우려 높아지자
확정금리 판매 중단하거나 최저보증이율 낮춰

보험사들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역마진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확정금리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최저보증이율을 낮추고 있다.

최저보증이율은 시중금리와 상관없이 보험 가입자에게 최소한 그 만큼의 금리는 주겠다고 약속한 이율이다. 업계는 빅3(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생보사로부터 촉발된 역마진 우려 바람이 전 보험권에 퍼질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케이손해보험은 'The-K더모아연금보험'의 판매를 지난달 중단했다. 출시 2개월만의 일이다. The-K더모아연금보험은 연 3.75%의 확정금리 상품으로 5~6월 두달간 2000여건의 판매가 이뤄졌다. 현재 더케이손보는 연 3.80%의 변동금리를 적용한 The큰행복연금보험만을 판매하고 있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The-K더모아연금보험은 금리가 높은 확정금리 상품인 만큼 판매를 계속하면 역마진 가능성이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판매를 중단했다"며 "전종목 판매 허가를 받아 초기 영업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성으로 내놓은 상품"이라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최저보증이율이 3.75%인 종신보험 '프리미엄평생보장보험U3'의 판매를 오는 8월까지만 하기로 했다. 그 대신 '프리미엄평생보장보험U4'라는 상품을 8일 출시했는데, 최저보증이율이 3.50%로 낮아졌고 3대 진단시 납입면제 기능은 별도의 특약으로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고객 입장에서는 혜택이 대거 줄어든 셈이다.

현재 최저보증이율이 가장 높은 보험으로 동부생명의 'The smart 연금플러스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과 동양생명의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 등이 있다. 이 상품들은 각각 3.75%의 최저보증이율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도 조만간 인하될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역마진 부담이 큰 대형생보사들은 지난해 말이나 올 상반기에 조정을 마쳤다. 삼성생명은 지난 4월 부터 금리 연동형 보험의 최저보증이율(보험료 납입 경과 기간 5년 이내)을 일괄적으로 2.5%에서 2%로 0.5%포인트 인하했다. 강구귀 기자 kkk@

신한銀, 2분기 퇴직연금 '1위'

적립금 8조6473억원 기록
수익률은 대구은행 '최고'

2분기 은행권 퇴직연금시장에서 신한은행이 적립금 총액기준으로 1위 자리를 지켰다. 수익률에선 대구은행이 가장 좋은 성과를 냈고 비원리금보장상품은 국민은행의 실적이 좋았다.

18일 은행연합회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2분기 14개 은행의 퇴직연금 총 적립금 45조6051억원으로 지난해 말 42조7332억원 대비 6.72% 증가했다.

14개 은행 가운데 퇴직연금 적립금이 가장 많은 곳은 신한은행이었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을 합쳐 총 8조6473억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은퇴브랜드 '신한미래설계'를 론칭하고 통합 은퇴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며 떠오르는 노년층 자산관리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공격적인 전략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론 국민은행이 7조9341억원으로 신한은행을 바짝 쫓고 있으며, 우리(6조9778억원), 기업(6조2180억원), 농협(4조221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수익률은 대구은행이 가장 높았다. 대구은행은 DB, DC, IRP형 원금보장상품으로 각각 0.81%, 0.88%, 0.81%의 수익을 냈다.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은행과의 차이는 0.08%였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중장기 상품 위주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14개 은행 원금보장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DB, DC, IRP형이 각각 0.77%, 0.78%, 0.78%였다.

비원리금 보장상품은 국민은행이 선전했다. 퇴직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특성상 원리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인기가 낮지만 국민은행은 총 적립액 6243억원을 끌어모아 1위를 기록했다.

수익률 면에서도 안정적이었다. 국민은행의 비원리금보장 DB, DC, IRP형 상품의 수익률은 각각 1.56%, 1.31%, 1.37%로 적립금 규모가 큰 5개 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기업) 평균이 1.1%대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성과를 거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퇴설계 브랜드인 'KB골든라이프'를 통해 체계적인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운용사 선정 및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고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ijak@

정부, 기업銀 지분 2500억 블록딜

IBK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1923만주를 매각한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의 주식 1923만770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주당 가격은 1만3000원으로 이날 종가인 1만3650원보다 4.8% 할인된 금액이다. 지분이 매각되면 기획재정부는 2500억원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블록세일이 기업은행 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보유 기업은행 지분 매각 시기를 90일 이후에나 가능하도록 하는 락업 조항을 걸어뒀다. 이재현 기자 nfs0118@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이주열 총재와 은행장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시중은행장들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진원 신한은행장, 홍기택 산업은행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이원태 수협은행장, 김주하 농협은행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이 총재, 권선주 기업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아제이 칸왈 SC은행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김한조 외환은행장. 노진환 기자 myfixer@

부산저축銀 캄보디아 땅 예금보험공사 매각 성공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시 소재 부동산 매각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2012년 8월 이후 부지 매각을 위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3회를 비롯해 수의 계약 5회 등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총선 이후 시위와 폭동이 잇따라 협상이 번번이 결렬됐다.

최종 매수의향자는 대만계 캄보디아인이며 매입가 대비 152%, 감정평가액 대비 106%인 532만달러(한화 약 55억원)에 매각이 성사된 것.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지속적인 매각을 통해 회수극대화 및 부채감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커피·운동' 즐기는 2030 女… 노년에도 맘껏 누릴 수 있을까

삼성카드, 커피상품권 구입 4년 전보다 5배 증가

삼성카드는 20~30대 여성 회원의 소비성향을 2010년과 비교 분석한 결과, 상품권 구입이 4년간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피 상품권 구입건수(1만5000건→21만건) 는 14배 증가했다. 과거에 백화점 등 유통 상품권 구매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엔 가격이 저렴하고 구매도 편리한 커피 상품권이나 모바일 상품권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커피상품권에 이어 증가율이 높은 항목은 스포츠의류 등 레저용품으로 2010년 1만9000건에서 올해 5만8000건으로 늘었다. 뷰티·성형 부문의 증가율도 높았다. 2010년 2만4000건이던 결제건수는 올해 5만9000건으로 2.4배로 늘어났다. 박엘리 기자 ellee@

삼성생명은퇴硏, 노후연금 男 36만원·女 15만원

우리나라 여성의 월평균 노후연금이 남성의 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정기적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남성은 월평균 36만4000원, 여성은 1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월평균 연금은 25만4000원이다.

특히 여성의 월평균 연금액은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60만3403원)의 4분의 1 이하로 여성이 노후 빈곤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57.3%)이 금액이 작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금액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캐피탈사, 가계신용대출 규제 비상

금융위, 총자산 20% 내로 제한
롯데·씨티 30% 넘어 '발등에 불'

금융위원회가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을 영위하는 캐피탈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가계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롯데·씨티·SC캐피탈 등 소매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사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캐피탈사들의 가계신용대출 비중이 총 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가계신용대출이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면서 일부 회사의 경우 현 수준보다 가계신용대출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당장 기업 여신보다 소매금융을 주력으로 해 온 롯데캐피탈을 비롯해 씨티캐피탈, SC캐피탈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 금융사는 총 자산 대비 가계신용대출 취급 비중이 3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캐피탈은 총 자산이 4조4000억원 규모로 10% 이내로 줄여야 하므로 현재보다 2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씨티캐피탈(1조7000억원)과 SC캐피탈(1조3000억원)은 총 자산이 2조를 넘지 않아 20% 이내로 감축하면 된다.

결국 이들 금융사는 소액 신용대출 만기로 상환되는 것만 회수하고 더 이상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총 자산이 22조에 달하는 업계 1위 현대캐피탈의 경우는 소매금융 비중이 9%대여서 더 이상 취급을 늘리지 못하고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

한편 오토론(자동차구매자금대출)은 겸영업무로 취급 가능하도록 해 이번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비카드 여전사의 업무범위를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구분하고 향후 오토론 등 자동차 할부에 대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박엘리 기자 ellee@



더존 Good,Better,Best IT그룹 DUZON

산업군별 대표기업도 다양한 강소기업도

ERP는 역시, 더존 ERP

자체 데이터 센터 보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체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 D-클라우드 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모바일, 보안시스템 등 최신 IT기술을 접목

단계별 ERP Line-up
확장형 ERP, 건설 ERP, 비영리법인용 ERP 등 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단계별 Line-up 보유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IFRS 연결·개별 솔루션, XBRL 솔루션, FTA-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보유

완벽한 통합 시스템
22년 ERP업력으로 산업군별 표준 프로세스, 특화서비스 보유 및 자체 확장솔루션(그룹웨어, MES, POP 등)을 통한 완벽한 통합시스템 구현

Blue Heart 더존 기업을 움직이는 푸른심장 | www.duzon.co.kr | 전국 통합 상담 1688-5000

Home plus

힘내자! 대한민국

사상최대

홈플러스 氣(기) 세일

13,900원 대왕 럭플러스무형광화장지 (27M×30롤) 1+1

790원 진로석수(2L) 1+1

990원 롯데칠성 하늘샘(1,5L) 1+1

20,000원 → 10,000원 찹쌀 (4kg/봉/국내산) 50% 할인

당도선별 12,000원 → 10,000원 점보 꿀수박(10kg내외/통/국내산)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2천원 할인 ※신한, KB BC 제외

3,000원 팔도/오뚜기/삼양 비빔면 (130g×5입)

6,800원 TESCO 냉동 블루베리 (1kg/칠레산)

오늘 초복특가 1,500원 생닭(500g내외/마리/국내산)

※10만마리 한정 /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서귀포점 제외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20% 할인 ※신한, KB BC 제외

4,000원 → 3,200원 구이용전복(점보/마리/완도산)

이마트보다 비싸면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 계산대에서 바로 쿠폰으로 드립니다 • 전국 139개 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 포함) • 차액 보상상품 2000개

홈플러스 일요일 정상영업

氣 살리는 500여개 생필품 무조건 반값

氣 살리는 파격 할인전 무조건 1000원

인터넷 쇼핑몰 혜택

homeplus.co.kr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7/18(금)~8/13(수)

최대 15% + 무료배송 3만원 이상 구매 시

자세한 내용은 홈플러스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참조

※ 행사기간 : 7월18일(금)부터 7월23일(수)까지 ※ 상품 및 소비자피해보상 안내 ·상품의 원재료, 혼용률, 세탁방법 등의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가공지역, 보증기간은 상품이나 매장 또는 보증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환환불 및 결함하자 등에 따른 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준법)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식품구매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신선식품은 진열방법에 따라 중량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광고 상품은 제조사 사정에 의해 가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행사 내용은 점내 고지물 참조 ※ 입점 점포에 한함 ※ 신문광고상품은 온라인상품과 가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상품은 조기에 품절될 수 있습니다.



17일 서울 '위드미' 반포예일점이 새 'With me' 간판을 달고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그룹

"위드미 연내 1000곳"… '신세계 편의점' 출격

로열티·위약금·영업시간 강제
'3無 정책' 가맹점주 부담 덜어
경쟁업체들 "이탈 막아라" 긴장

신세계그룹이 편의점 위드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로열티, 중도해지위약금, 영업시간 강제가 없는 '3무 정책'이 핵심으로, 본사가 가맹점에 상품을 제공하는 형태다. 신세계는 기존 편의점을 위드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현재 137곳에 머문 가맹점 수를 연내 전국 100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조두일 위드미에프에스 대표는 17일 신세계조선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상생형 모델로 차별화했다"면서 "목표가 다소 과도해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위드미 가맹모델은 가맹점주들이 매출 이익에 따라 늘어나는 별도 로열티 대신 매달 정액회비를 내는 형태다. 월 회비는 인테리어와 영업장비·집기 투자비율에 따라 경영주가 모두 투자하는 경우 2년간 월 60만원, 본부가 모두 투자하는 경우 5년간 월 15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또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도 기대수익 상실액 관련 위약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돼 가맹본부와 경영주간 불공정거래 불씨를 없앴다. 기존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기대수익 상실액 명목으로 2~6개월치 로열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중도해지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형태가 많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상권 개발을 통한 신규 출점보다는 기존 대기업 운영 편의점 또는 매출 악화로 고민하고 있는 개인 편의점을 위드미로 전환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세계는 '3무 정책'외에도 경영주를 위한 연중 휴가, 영랑호 리조트 이용 등 복지혜택을 내걸었다.

편의점 업계는 겉으로 태연함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편의점 업계가 갖고 있는) 운영 노하우, 상권 보장없이 상품 공급만 하는 형태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세계가 인수하기 전 위드미 모델에서 볼 수 있듯 이미 한 차례 실패했던 전략을 다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대형마트 유통과 편의점 유통은 물류 구조, 상품 특성 등에서 완전히 다르다"며 "이마트 자체브랜드 등 신세계그룹 시너지를 내겠다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업 특성에) 적절한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가맹점주 이탈을 막기 위한 방어전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 1위 CU는 빠르면 다음달 'CU 경영주 전용 온라인쇼핑몰'을 열고 가맹점주들이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GS25는 업계 최초로 가맹점주를 위한 단체상해보험 비용을 본사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다람 기자 zing@

삼성-현대車 '한전부지 쟁탈전'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 이달 감정평가 내달 말 매각공고

삼성과 현대차그룹 간 '땅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기로 하면서다. 양측 모두 한전 부지 매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업적·경제적 이점이 많은 터라 치열한 인수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연내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7만9342㎡)를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달 중 감정평가를 실시한 이후 8월 말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로써는 현대차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인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올해 초 서울 양재동 본사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부지 인수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대차는 한전 부지에 업무시설과 고급호텔, 컨벤션센터, 자동차 테마파크, 대형 쇼핑몰 등을 두루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현대차가 GBC를 세우려는 이유는 그룹의 컨트롤타워 확립과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다. 현대차는 17일 "글로벌 5위 완성차 업체 위상에 걸맞은 GBC 건립을 통해 그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보하겠다"며 "동시에 문화와 생활, 컨벤션 기능을 아우르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양재동 사옥은 수용인원이 4000~5000명에 불과한 탓에 현재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등 주요 계열사들은 시내 건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상태다. 현대차는 산재돼 있는 계열사를 한데 모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부지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현대차와는 달리 삼성은 한전 부지 인수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에 있어 한전 부지 인수는 여러모로 매력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인수전 참여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삼성생명이 한국감정원 본사 부지(1만988㎡)를 매입한데 이어 삼성이 한전 부지까지 인수할 경우 삼성은 강남과 삼성을 잇는 '삼성타운'을 조성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한전 부지에 업무 및 관광숙박시설을 짓거나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10조원을 투자해 한국감정원 부지와 한전 부지, 서울의료원, 주변 민간 토지를 업무·상업 용도의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한전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본사를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다. 한전 부지는 장부가액 2조73억원, 공시지가(2013년 기준) 1조4837억원이며 시세는 3조~4조원으로 추산된다. 김지영 기자 gutjy@



김선권 "한국을 커피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카페베네 대표〉

경기도 양주 백석읍에
글로벌 로스팅 공장 준공

커피업체 카페베네가 경기도 양주에 글로벌 커피수출 전략기지를 구축했다.

김선권〈사진〉 카페베네 대표는 17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에 위치한 글로벌 로스팅 플랜트 준공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곳을 카페베네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7년까지 전세계 4000개 매장 오픈을 목표로 각 진출 국가별 매장과 제조품 등에 들어가는 원두를 전량 양주 글로벌 플랜트에서 생산하고 수출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커피 수출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준공된 카페베네 양주 로스팅 공장은 총 188억원을 투자해 지난 2021년 9월 첫삽을 뜬 후 만 1년 만에 준공됐다. 공장부지 총 5453평에 건축면적 2455평 규모로 연간 7738톤의 원두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매일 1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50만 잔의 커피 분량이다.

이 공장 내부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총 3개의 로스터에 추가로 도입한 열풍식 드롭 로스터로 구성된 자동 제어식 로스팅 플랜트가 구축됐다. 또한 항온 항습 시설을 도입해 600평 규모의 생두창고도 만들었다. 새로 도입된 열풍식 로스터기는 빠르고 균일한 로스팅이 가능해 맛의 편차가 없는 최고급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해외 시장에서 카페베네 매장 유치 뿐 아니라 다양한 원두 관련 제품 개발과 유통산업 지출을 시도하겠다"며 "2017년 총 2000톤의 원두 수출을 목표로 커피 소비강국에서 커피수출강국으로 국내 커피시장 판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카페베네는 올 상반기 300여개 해외 매장에 커피 음료와 조제품 등 총 68톤 가량의 원두를 수출했다. 이는 국내 커피 관련 기업으로서는 최대 규모이며 전체 수출 물량의 65%에 달한다. 윤철규 기자 yoonck@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 성과급 25% 자진 반납

2분기 실적악화 책임 차원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 전원이 상반기 성과급 중 일부를 회사에 반납했다. 올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임원들부터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며 조직의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 임원들은 지난 8일 상반기 성과급인 '목표달성장려금(TAI)' 가운데 일부를 자진 반납했다. 올 상반기 무선사업부 임원들은 생산성 및 가치창출 목표를 달성해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임원들은 A등급에서 스스로 등급을 낮춰 B등급의 성과급 지급분만 받기로 했다. 기본급의 75%만 성과급으로 받고, 나머지 25%는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 둔화로 스마트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온 만큼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예측이다.

TAI는 상^8하반기에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회사와 사업부 실적에 따라 월 기본급의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다. 반기마다 계열사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4단계로 나뉘어 지급되는 TAI는, A등급은 기본급의 100%, B등급은 50%, C등급은 25%를 받고, D등급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이번 상반기 지급된 TAI 총액은 5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반기 평가에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정밀화학, 삼성테크윈은 D등급을 받으면서 성과급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성은 하반기 실적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비용을 30%가량 줄일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gutjy@



이투데이 교육센터 대관안내

대관 문의
대관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임대 가능여부 확인
전략사업실: 02-799-2683

대관 신청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송부
FAX: 02-784-2666

시설 현황
스크린 | 프로젝터 | 노트북 | 유선 Mic 2ea | Console | Speaker
WiFi 가능 | 현수막 부착 가능

위치 안내
대방역 도보 1분
샛강역 도보 3분
여의도역 도보 10분



'이투데이 | 교육센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이투데이빌딩 | TEL.02)799-2600 | FAX.02)784-1003 | www.etoday.co.kr

휴업 의무 판매 금지 시간 제한 … '유통' 숨통만 조였다

유통이 살아야 경기가 산다

① 대형마트·백화점 시계제로
② 현실 모르는 정부의 규제 사슬
③ 보이지 않는 제재 '동반성장지수'
④ 도약 위한 해법 어디에 있나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린다했지만
중소소매점 매출 증대 효과는 없고
마트 상품공급 농가·제조업체 타격
내수 움츠러들고 소비자 불편만
규제개혁 철폐에 유통업만 '해당무'

주부 A씨는 대형마트로 장보러 가는 날에 항상 스마트폰으로 휴점 여부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마트가 문을 여는 날 장을 보고, 문을 닫으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뿐, 인근에 위치한 시장은 찾지 않는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신용카드 이용도 잘 안 되고, 품질도 떨어질 뿐 아니라 상품도 다양하지 않다는 게 기피 이유다. 이곳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 B씨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규제됐지만 매출은 전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을 지원할 생각을 해야지, 대형마트만 쉬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거냐고 기자에게 핀잔을 줬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이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이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마트는 마트대로 매출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 영향은 마트에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 농가와 제조업체까지 미치면서 전체적인 내수 부진을 불러왔다. 소비자들의 불편은 애당초 관심사도 아니었다.

◇마트 3사 9분기 연속 매출 감소·SSM 위기 = 대형마트의 매출이 지난 2012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 행진 중이다. 2012년 4월 시작된 의무휴업과 출점규제가 매출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마트의 2012년 매출 증가율은 5.1%였으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3% 오히려 감소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 매출도 1.3% 감소했다. 마트 3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이마트 -1.6%포인트, 홈플러스 -4.2%포인트, 롯데마트 -2.9%포인트 등 일제히 줄어들었다.

이마트 이갑수 영업총괄부문 대표는 "이마트의 매출은 작년 상반기 이후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했다"며 "생필품 중심의 대형마트가 1년 반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역시 위기다. 전국에 432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SSM 업계 1위 롯데슈퍼는 지난 1분기 3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슈퍼가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이다. 257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업계 3위 GS수퍼마켓도 1분기 영업이익이 2억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급감했다.

주요 SSM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된 것은 규제 강화로 신규 점포 출점이 급격히 줄었고,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규제와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 폐점하는 곳도 생겼다. 대표적인 예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망원점. 홈플러스는 지난해 망원역과 300m 떨어진 합정점 개점을 앞두고 망원·월드컵시장상인회와 2011년 부터 마찰을 벌였고, 지난해 2월 지역상인과의 상생을 위해 망원점을 폐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원점은 지난 2007년 문을 열었고 한해 평균 8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알짜 점포였다.

이처럼 규제 정책이 마트와 SSM 매출은 감소시켰지만 정책의 목표였던 일반형 슈퍼와 전문소매점 매출 증대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권영선 카이스트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정책 및 소형가게 매출 증가' 연구에 의하면, 매월 2일씩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일 의무휴일이 이뤄지고 있지만 전통시장 매출을 포함한 전문소매점의 매출 증대효과는 없었다"고 진단했다.

◇상생품목 판매금지 '후폭풍'… 농·축산 농가 시름 =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품목을 정하면 대형마트나 SSM(기업형슈퍼마켓)이 그 품목을 팔 수 없도록 하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단순히 마트의 매출 감소와 소비자의 불편함을 넘어 농축산 농가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대한양계협회, 한국4H본부 등 농·축산단체들은 상생품목 지정 제도가 마트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농·축산인에게 급격한 소득 감소를 불러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광천 한농연 대외협력실장은 "상생품목 지정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판로가 막혀 급격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고, 또 농·축산물이 제때 출하되지 못하면 저장비용이 증가하면서 결국 가격이 상승해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규제철폐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통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오히려 각종 규제가 더 쌓이고 있다"며 "억지 규제로 소상공인이 보호되지는 않기 때문에 섣부른 규제입법을 거둬들이고 시장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외국계 업체만 득… 역차별 논란

김해공항 면세점 40%, 세계 2위 '듀프리'가
10여개 공공식당 美 급식업체 '아라마크'에

대기업 입찰 금지에 소규모 국내법인 세워

세계 2위 면세점 듀프리는 지난해 10월 김해공항 면세점 DF2 구역 운영권을 따냈다. 면세점 전체 면적 약 40%를 차지하는 DF2구역은 동반성장 정책에 따라 대기업을 배제한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입찰 자격이 주어진 곳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듀프리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유한회사 듀프리 토마스즐리코리아를 설립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받았다. 중소·중견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역이용해 소규모 국내법인을 세운 뒤 법의 허점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롯데면세점이나 신라면세점 등 국내 대기업들은 외국계 거대기업에게 경쟁도 못하고 앉아서 당한 셈이 됐다.

급식업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연 매출 15조원 규모 미국계 급식업체 아라마크가 한국에 만든 100% 자회사 아라코는 지난해 3월 이후 10여개 공공식당 운영권을 따냈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대기업 참여를 막은 덕택이다.

이처럼 외국계에 비해 국내 대기업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중소기업청은 22일부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을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에는 두부나 간장 등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생산 확대가 제한된 영향으로 국산 콩 가격이 급락했고, 빵집은 제과업종 제한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휴게음식업중앙회는 전경련·한국식품산업협회와 협약을 맺고 동반성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다람 기자 zing@

유통선진국 규제 현황 살펴보니

선진국 대형마트 규제 현황 1 출점규제 2 영업시간 제한

독일	1 기존상권의 심각한 피해 예상될 경우 2 주중 : 24시(대부분) 토요일 : 24시(일부 시작) 일요일 : 폐점 원칙	
프랑스	1 상업도시계획위원회 허가 및 공청회 절차 2 주중 : 없음 일요일 : 폐점 원칙	
미국	1 입지규제에 따름경우 2 없음	
영국	1 입지규제에 따름 2 주중 : 없음 일요일 : 10시~18시(총 6시간이내)	
일본	1 신고제 (1,000㎡ 이상), 주민설명회 절차 2 없음	
한국	1 등록제(3,000㎡ 이상) 2 주중 : 10시~24시, 매월 일요일 휴무 2회(지자체별로 차이)	

보편성 문제 제기… 시민생활 편의 중심 전환

美·日, 평일·주말 영업시간 제한없고
獨, 심각한 피해 예상때만 출점 제한

우리나라보다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소매점 확산에 따른 문제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의 규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을까?

선진국들 역시 처음에는 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경제적 규제에 주력하는 등 우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의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고 보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시민생활 편의를 중시하는 계획 시스템적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유럽에서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인 독일은 평일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일요일의 경우 노동권과 종교생활 보장을 위해 소매점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가 문을 닫을 뿐이다. 프랑스와 영국도 독일과 비슷하다. 일본과 미국은 아예 영업시간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는 지자체별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통상 새벽 0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매월 일요일 중 2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출점규제는 지역사회 동의와 지역상권 피해 여부에 따라 갈린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에 따라 1000㎡ 이상일 때 신고하게 돼 있고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독일은 기존 상권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출점하지 못한다. 프랑스는 1000㎡ 이상의 유통점을 신·증설할 경우 상업도시계획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윤철규 기자 yoonck@



SKT KT LG U+

혁신·융합·그린… 이통사 CEO 미래 경영 키워드

SKT, 기존 방식 뛰어넘는 노력으로 새 가치 창출
KT, 안으로 부서간 소통…밖으로 타 산업과 협업
LG U+, 에너지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낮추기로


하성민 SKT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 U+ 부회장

"새로운 30년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입니다." (하성민 SKT 사장)

"네트워크·플랫폼을 토대로 타산업과의 '융합'을 선도하겠습니다." (황창규 KT 회장)

"2014년에는 '그린' 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철 LGU+ 부회장)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CEO들이 미래 경영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는 이통 3사가 최근 지난해 성과와 향후 경영 비전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공개된 키워드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가장 빨리 발표한 곳은 LG유플러스다. 지난달 29일 LG유플러스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초 지속가능경영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한 '사회적 가치 창출·그린 경영·상생 경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중에서도 이상철 부회장이 제시한 키워드는 '그린 경영'이다. 그는 "LG유플러스는 2011년부터 무선기지국 저전력화, 통합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추진해 왔으며, 이외에도 그린데이터센터 구축, 노후설비 교체, 직영점 통폐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14년에는 투자 및 구매 프로세스에 환경 요건을 반영하고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그린 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스마트 에너지, 통합 보안, 차세대 미디어,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 관제 등 5대 미래 융합 서비스 전략을 발표한 황창규 KT 회장 역시 지난 14일 'KT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도전·융합·소통을 핵심가치로 삼고, 부서간 벽을 없애는 긴밀한 협업으로 하나된 KT를 만들겠다"며 '융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황 회장은 "국가 망을 보유한 KT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사업과도 융합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인프라를 토대로 타 산업과의 최첨단 융합 서비스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겠다"고 자신했다. KT는 이와함께 올해 보고서를 통해 △1등 KT △싱글 KT △고객 최우선 △정도 경영 등 4대 핵심가치를 강조했다.

SK텔레콤은 17일 지금까지와 달리 연차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합친 첫 통합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성민 사장이 이 통합보고서를 통해 강조한 것은 '혁신'이다.

그는 "기존의 방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만이 급변하는 환경을 돌파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며 "고객가치를 위한 끊임없는 변화, 핵심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도 차세대 통화 플랫폼 'T전화', TV는 물론 스마트 홈 기능까지 제공하는 'B box'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확장을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KT "전기차 충전소 400곳 만든다"

2019년까지…정부 정책 맞춰 시기·지역 등 조율

KT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 진출한다.

KT는 5대 미래융합서비스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 폐열재활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너지관리시스템(EMS) 통합서비스, 지능형 전력 수요관리 등 4개 스마트 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KT는 우선 5년내 전국 곳곳에 산재한 지사(전화국) 400곳에 전기차 충전 장치를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객 접근성이 높은 지사부터 완속·급속충전기, 서비스플랫폼 등 충전 인프라를 우선 보급키로 했다. 동시에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해 관련 인프라도 확대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5년후인 2019년까지 400개 지사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보급률과 정부 정책에 맞춰 충전소 설치 속도와 시기, 지역 등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현재 첫 충전소 설치 시기와 장소를 물색 중이다.

KT는 이와함께 원거리에 있는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도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전기차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커넥티드 카(Conected Car)'를 실현, 배터리 관리와 충전위치 알림부터 차량 운행 관리, 이상진단, 장애 관리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히겠다는 의도다.

김범근 기자 nova@



팬택 협력사 협의회 "SKT, 회생 동참을"

팬택 협력사 60여개 업체로 구성된 '팬택 협력사 협의회'는 17일 오후 서울 을지로 SKT타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팬택 회생방안에 SK텔레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력사측은 호소문을 통해 △미래부·방통위 등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촉구 △이통 3사의 팬택 회생방안 적극 수용 △채권단의 적극적인 워크아웃 진행 등을 요청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영화와 손잡은 게임

'파이러츠' 테스트팬 '명량' 예매권
'아키에이지'에 '해적' 손예진 등장

게임업체들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개봉 예정 영화들과 잇따라 제휴 프로모션을 펼치며 여름사냥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 CJ E&M넷마블, 엑스엘게임즈 등이 각사의 게임 콘셉트와 맞아 떨어지는 여름 블록버스터와 손을 잡고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며 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CJE&M 넷마블은 온라인 게임 '파이러츠: 트레저헌터'의 제로 테스트를 기념해 영화 '명량'의 예매권을 주는 이벤트를 19일까지 진행한다. 테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예매권을 제공한다. 테스트 기간 캐릭터의 레벨5 이상 달성하면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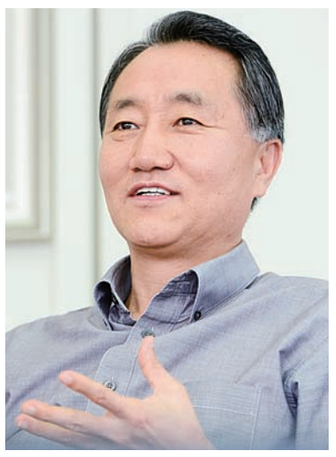
엑스엘게임즈도 김남길·손예진 주연의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영화와 함께 MMORPG '아키에이지' 프로모션 행사를 30일까지 열고 있다. 아키에이지 게임을 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하면 '해적' 예매권과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게임에는 보조캐릭터로 손예진이 등장한다.

정유현 기자 yhssoo@

월드클래스를 향해
④ 이형우 마이다스아이티 대표

"우리 목적은 사람의 행복"

건축 안전 시뮬레이션 SW 세계 점유율 30% 업계 1위
취미이자 특기 '사람 키우기' 경영 핵심 자발적 인재육성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행복이며, 경영의 목적은 사람의 행복을 돕는 것입니다."

이형우(54·사진) 마이다스아이티 대표이사의 사람에 대한 철학은 남다르다. 인간의 본성과 자연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며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판교의 마이다스아이티 사옥에서 만난 이 대표는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이 전부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건설과 기계분야의 구조해석과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급하는 회사다. 2000년에 설립돼 첫해 15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건축물이나 교량 등을 안전하게 짓기 전에 예상되는 바람,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안전한지 미리 검증해야 한다. 이를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마이다스아이티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9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30% 가량을 담당하고 있어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대표의 취미이자 특기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경영의 핵심은 육성이고, 육성의 핵심을 자발과 자율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 회사의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편안한 옷차림에 자유분방함 그 자체다.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있어서도 스펙보다 인성을 본다. 이 대표는 "마이다스아이티 채용 조건 1순위는 스펙이 아닌 열정"이라며 "욕망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동기부여가 잘 이뤄지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다스아이티에는 진급 누락이라는 제도가 없다. 다만 4년마다 자동으로 승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성장기회를 주기 위해 특진과 조기진급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마이다스아이티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적용 사례는 전 세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국내에서 가장 크고 긴 인천대교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많은 건축물들이 설계단계에서 마이다스아이티의 시뮬레이션을 거쳤다. 이 대표는 "2000년대 이후 국내에 세워진 건물 대부분은 마이다스아이티소프트웨어를 거쳤다고 보면 된다"며 "해외 랜드마크 등 많은 건물의 시뮬레이션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매년 소프트웨어 매출액의 20% 이상은 연구개발 등 기술 발전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연구개발 비용만 22.8%로 78억원에 달한다. 산업의 특성상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구조물의 설계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은 필수다. 그 결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만 19개에 달하고 프로그램 저작권은 56개에 육박한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11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받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특히 월드클래스 지원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그는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CAED 솔루션 개발 지원, 마케팅 부문에서는 해외 진출에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공동기획= beyond leading technology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Oregon SCIENTIFIC

공기에도 품질이 있습니다

생활의 품질을 높여주는 오레곤 i.fresh 나노 공기청정기

Real-time Air Quality Display:



봄철 황사 알러지와 감기 바이러스가 급증하는 요즘-
당신은 어떤 공기에서 살고 있습니까?
미국 실리콘밸리 스마트리빙 기업
오레곤 사가 개발한 i.fresh 나노 공기청정기는 촉매식 산화 기술을
사용하여 공기 정화는 물론 각종 알러지 원인을 제거하고
건강에 중점을 맞춘 제품입니다.
지금, 당신이 숨쉬는 공기가 당신의 건강을 말해줍니다.

- **이중 필터 채용** – 일본 방사능 오염수 정제작업에 사용한 제올라이트 나노 필터 / 공기 중의 대형 입자를 제거하는 프리 필터 채용
- **혁신적 디자인** – 2011년 IF 디자인 어워드, reddot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감각적 디자인
- **편리한 디스플레이** – 공기상태 모니터링 표시 / 무드라이트 기능 / 팬 속도 3단계 조절

취급점 모집 (02) 3444-9238

판매대리점 • 윈윈커플러 02-364-0412 • SM커머스 02-3431-0388 • 온오프마켓 070-4705-2231 • 예성인터내셔널 070-7722-7454 • 라이프앤샵 02-2675-4568 • 하우올린 02-2191-3519 • 대현시스템 1599-0203 • 동해유통 051-302-4536

특가판매 ~~₩229,000~~ → ₩33,000 × 6개월(무이자) 제품문의 및 주문 (02) 3444-9238 / www.myseason.co.kr

(주)오래뜰 | 대표:최병철 |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73-1 | info@myseason.co.kr | 서울 중구-1139호

“반군이 군소송기로 오인”…“그럴만한 로켓 없다”

말레이 여객기 우크라이나서 미사일 피격

친러군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암시글…국제사회 무게 “10km 상공 비행할 수 있는 무기 없다” 강력 부인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MH17편 보잉777 여객기가 러시아 접경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17일(현지시간) 추락하면서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 여객기는 이날 러시아 국경 인근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도시 샤흐툐르스크 부근에 추락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교전 중인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통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일단 친러시아 반군이 여객기를 격추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반군이 자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소셜미디어 사이트 ‘VK닷컴’에 반군 사령관이 여객기를 격추했음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고리 스트렐코프 반군 사령관은 자신이 올린 글에서 “An(안토노프)-26 수송기를 토레즈 근처에서 격추했다”면서 “비행기는 프로그레스 광산 부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군이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우크라이나의 군 수송기로 오인해 격추했을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반군은 앞서 지난달 14일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역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측 AN-26 수송기를 격추했으며 당시 탑승객 49명이 모두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확보한 반군의 전화 도청 자료 역시 반군의 미사일 발사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도청 자료에서 반군 지도자인 이고리 베즐레르는 러시아군 정보장교에게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보고했다.

반군은 그러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정부군이 여객기를 격추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보로다이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총리는 “10km 상공에 있는 항공기를 격추할 만한 무기가 반군에 없다”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로켓은 상공 3km 정도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1부총리 안드레이 푸르긴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여객기를 격추했다”라고 주장했다. 반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제조사단을 도네츠크 지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진상 규명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러시아산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했다.

마켓워치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높은 고도의 여객기를 격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의 책임은 우크라이나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경제 관련 내각 회의에서 “사고가 난 지역 국가가 이 무서운 비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항공 보잉777 여객기 잔해를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도네츠크/이타르타스연합뉴스



실종 이어 피격까지… 말레이항공 악재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말레이시아 항공 보잉777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돼 탑승자 전원 29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말레이시아항공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말레이시아항공은 지난 2월 MH370가 실종된 지 몇 달이 채 되지도 않아 자사여객기가 미사일에 피격당하는 참사가 발생해 불과 4개월 만에 여객기 사고로 534명이 희생됐다.

지난 3월 실종된 MH370 편은 당시 쿠알라룸푸르공항을 떠나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도중 예정 항로를 이탈해 실종된 후 인도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여객기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실종 여객기 수색에 말레이시아는 물론 베트남, 중국, 호주 등 주변 국가들이 항공기와 함정·병력 등 막대한 지원을 투입했으나 끝끝내 기체 잔해조차 확인하지 못해 최대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았다.

당시 말레이시아 항공은 물론 말레이시아 정부도 시종일관 미숙한 사고대응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아 신뢰를 잃는 등 위기에 봉변했다.

이번 MH17 여객기 미사일 피격사건 역시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시아 반군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원인 규명에 험난한 여정이 예고됐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여름 휴가철 앞두고 여행 취소 속출할듯

태국·말레이·싱가포르 등 인근 지역

승객과 승무원 295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보잉777 여객기가 17일(현지시간) 추락한 가운데 휴가철을 앞둔 해외여행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여름 휴가지로 태국 등 동남아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은 약 31%로 괌·사이판 등 남태평양 휴양지 22%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인해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인근 지역 여행 예약 취소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은 이날 낮 12시 15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고 있었다.

이 여객기는 이날 오후 5시 25분께 러시아 영공에 진입할 예정이었으나 중도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 속한 도시 샤흐툐르스크 인근에 추락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한국인 탑승 여부 확인 중 승객 47명 국적 확인 안돼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피격된 여객기에 탄 승객 283명 가운데 승객 47명의 국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레이시아항공이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도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승객 가운데 한국인 포함 여부를 확인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항공 노선에 한국인이 탑승할 가능성은 작으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네덜란드와 말레이시아 소재 공관을 통해 한국인 탑승 여부를 확인 중이다”고 전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악화될대로 악화된 美·러관계 어디까지

스노든·크림반도 합병 이어 美 ‘러시아제’로 잠정결론 러 “우크라가 빌미” 부인 23년만에 ‘신냉전’ 우려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 사고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사고 원인이 러시아제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 측은 이번 사고 책임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사고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러시아제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17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이 정부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의식한 듯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내부에서는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러시아는 이번 여객기 추락 사건이 우크라이나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경제 관련 내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평화가 정착됐거나 전투행위가 재개되지 않았더라면 이 비극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객기 추락 사건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그러지 않아도 삐걱대던 미국과 러시아가 23년 만에 ‘신(新) 냉전 관계’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의 불편한 관계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특히 이들의 관계는 지난해 러시아가 미국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망명을 허용하면서 악화일로로 접어들게 됐다는 평가다.

올 들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이 지역의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됐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에 묻겠다며 경제적, 정치적으로 러시아의 손발을 묶기 시작했으며 유럽 국가들과 협력해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글로벌 리포트

美 신차판매, SUV가 1위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가 승용차를 앞질렀다고 경제 전문방송 CNBC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장조사기관 IHS오토모티브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신차 등록 추이를 분석한 결과, SUV가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승용차는 35.4%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에는 승용차 등록률이 36.6%로 33.9%를 기록한 SUV를 앞섰다.

톰 리비 IHS오토모티브 애널리스트는 “SUV는 높은 좌석과 시야성, 부드러운 주행과 넓은 내부 공간 등 경트럭과 승용차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밴과 픽업 등 모든 유틸리티차량을 포함하면 올 들어 5월까지 트럭 등록률은 전체의 53.2%를 기록했다고 CNBC는 전했다.

모건스탠리 ‘어닝서프라이즈’

미국 모건스탠리가 월가의 예상을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지난 2분기에 19억4000만 달러, 주당 94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의 9억800만 달러, 주당 41센트에서 순익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별항목을 제외한 주당순익은 60센트로 월가 전망치 56센트를 상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동기의 83억4000만 달러에서 85억2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알리바바 IPO, 9월로 연기

중국 알리바바그룹홀딩이 오는 9월 기업공개(IPO)를 실시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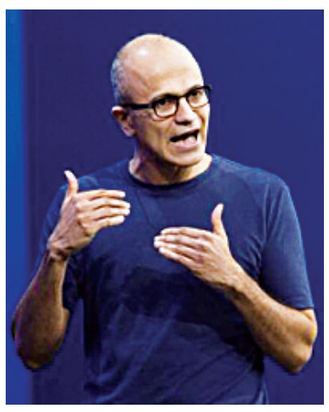
알리바바는 미국의 노동절인 9월 첫 번째 월요일 이후 IPO를 계획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8월 증시가 약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알리바바가 IPO를 시장의 예상보다 늦추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평가다. 시장의 예상처럼 8월 초에 IPO를 실시하는 것은 글로벌 로드쇼 등을 생각할 때 일정이 빠듯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를 비롯해 프레젠테이션 계획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8월 초 IPO는 쉽지 않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글로벌 리더

나델라의 결단… MS ‘구조조정’ 칼바람

6개월간 1만8000명 감원 실시 판매·마케팅·엔지니어링 집중 “클라우드·모바일사업에 주력” “발머와 차별화” 시장 신뢰↑



사티아 나델라〈사진〉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가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1만8000명 규모의 감원을 실시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으로 비대해진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나델라 CEO가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다.

이번 감원은 전체 인력의 14%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판매와 마케팅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부에서 집중적으로 감원이 진행될 전망이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지난 4월 인수한 노키아의 직원 1만2500명도 포함된다.

MS는 오는 2015년 6월에 구조조정이 완료될 것이라면서 11억~16억 달러의 세전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스티브 발머 전 CEO에 이어 MS의 사령탑에 오른 나델라 CEO가 취임 5개월째에 접어들면서 회사의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나델라 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한 메모에서 “오늘부터 감원이 진행된다”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감원 대상 직원에게 통지가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 직원은 물론 경영진 역시 구조조정 대상이라면서 외부 벤더 또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의 야망에 맞는 올바른 조직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나델라 CEO는 앞서 지난주 회사가 더욱 집중하고 효율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면서 엔지니어링팀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해 구조조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MS는 PC 운영체제(OS) 윈도 시리즈로 글로벌 정보기술(IT)산업을 호령했지만 지난 수년 간 모바일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워왔다.

특히 애플이 아이폰으로 승승장구하고, 구글이 IT산업의 리더로 성장하면서 MS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고 있다는 평가다.

다니엘 아이브스 FBR캐피털마켓 애널리스트는 “MS는 앞으로 수년 동안 몸집을 줄여야 한다”면서 “클라우드와 모바일사업에서의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결정한 나델라 CEO에 대해 시장의 신뢰가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발머 전 CEO와의 차별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MS의 움직임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또 다른 단계”라면서 “나델라는 장밋빛 안경을 쓴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나델라 CEO는 22년간 MS에 몸담았으며 빌 게이츠 설립자와 스티브 발머에 이어 지난 2월 MS의 3번째 수장으로 취임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www.dongsung-pharm.co.kr

동성제약

지금은 화이트 타임!

"밤 10시부터 랑스크림하세요"



멜라닌 케어로 깨끗하고 환한 피부로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부를 잘 아는 화이트닝
동성 랑스크림

동성 랑스크림은 나날이 쌓여가는 세월의 흔적을 멜라닌케어로 깨끗하고 환한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제품 구입 및 문의 : 080 020 2500 I www.dseshop.co.kr I www.ilovenature.co.kr



'용산 화상경마장' 금요일엔 안연다

마사회, 장외발매소 운영 "법원 화해권고 결정 수용"

매주 토·일요일만… 수업권 침해 등 주민과 지속 협의

한국마사회가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마사회와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 반대 측 주민들 간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반대 측 일부 주민들은 "이미 운영 중인 전국 30개소 화상경마장이 수많은 폐해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마사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며, 용산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한국마사회의 '영업 방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0월말 까지 시범 운영 후 수업권 침해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주민들과 신중하게 협의키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통보했다.

앞으로 마사회는 재판부에서 인정해 준 시범운영 기간까지 정상시행에 주력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마사회는 매주 금·토·일요일 운영하는 것에서 학기 중에는 토·일요일에만 운영하는 등 학생이 등교하는 날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시범운영기간 중에도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반대·찬성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14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여러 차례 반대 대책위 면담을 하는 등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찬성·반대하는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운영회를 통해 지역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난해 9월 개장 예정이었지만 이전을 반대하는 추방대책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1년 가까이 개장이 늦어져 영업손실을 겪고 있다.

앞서 마사회는 시설 낙후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용산 장외 발매소 이전을 추진했다. 1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용산 장외발매소는 2010년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어 2012년 용산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을 받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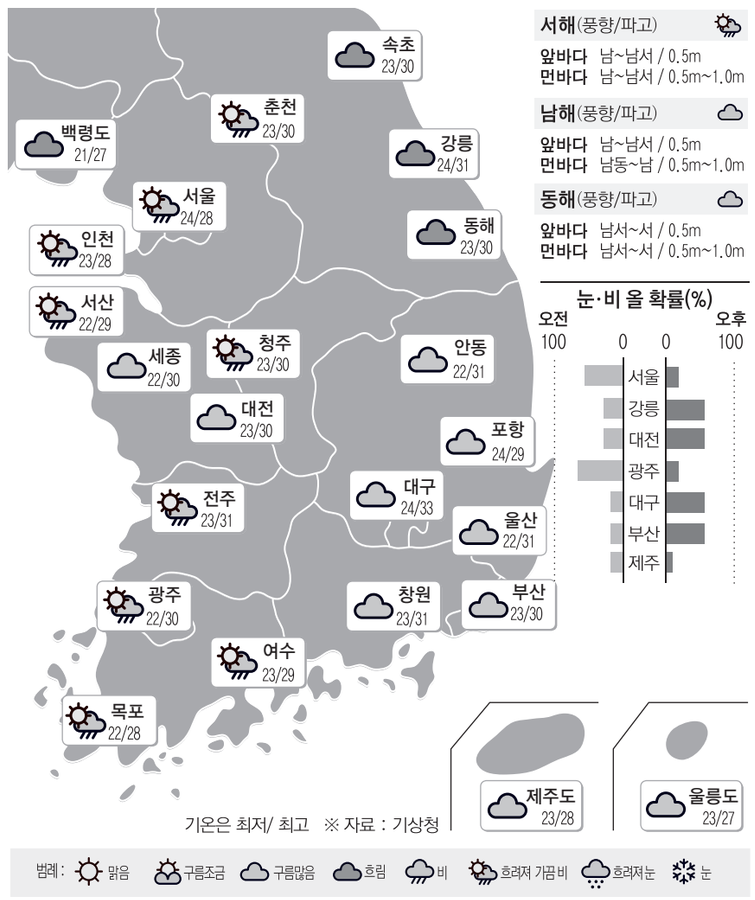
한편, 마사회는 시범운영에 대한 공정한 운영 평가를 위해 정부·국회·찬반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험운영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

내일의 날씨

7월 19일 ☼ 해뜸 05:25 해짐 19:51 ☽ 달뜸 –:-- 달짐 12:58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가끔 비(강수확률 60~70%)가 온 후 개겠다. 대기불안정에 의해 중부내륙과 경상남북도에는 오후에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8~33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송씨 새 뇌물장부 발견…현직 국회의원도

〈피살 재력가〉

檢, 정·관계 인사 분석작업 착수

'원본훼손' 재력가 장남 입건키로

검찰이 살해된 재력가 송모(67)씨의 또 다른 금전출납 장부를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송씨의 사무실을 수색해 기존의 장부와 다른 '매일기록부' 한 권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130쪽에 달하는 이 장부에는 1991년부터 2006년 7월 이전까지 송씨의 금전 출납 기록이 매일 볼펜으로 기록돼 있다.

기존에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장부는 2006년 7월부터 살해되기 직전인 지난 3월 1일까지 적혀 있다.

이 장부 역시 기존 장부와 마찬가지로 별지가 따로 정리돼 있다.

검찰은 새로운 장부에도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기존 장부에는 송씨가 수도권의 한 검찰청에 근무하는 A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현직 국회의원과 전·현직 시·구의원, 경찰·소방·세무·법원 등의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거나 식사를 대접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기존 장부에는 현직 국회의원 한 명의 이름이 적시돼 있고 200만~300만원의 금액과 식사대접 등의 용도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전·현직 국회의원은 없다고 공표한 사실을 뒤집는 것이다.

또 기존 장부에는 숨진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기록된 5억2000만원의 용처도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존 장부에 기록된 검사와 공무원 등의 이름을 수정액으로 지운 송씨의 큰아들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추가 공모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큰아들의 휴대전화 기록도 확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사본과 원본을 비교한 결과 장부에 별지와 함께 포스트잇도 여러 장 붙어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큰아들이 장부 내용을 더 많이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증거인멸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장부 사본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살인 및 살인교사 사건과 로비 의혹 수사를 함께 진행하던 형사4부에서 로비 의혹 수사를 분리시켜 형사5부가 전담토록 조치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유병언 미국 내 재산 추적·환수

美국세청과 역외탈세 공동조사

세무조사 대상·기간 막판 조율

檢, 유씨 재산 344억 추징보전

한국과 미국 국세청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역외 탈세 혐의와 관련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국세청이 유병언 일가에 대한 탈세 혐의를 조사하면서 미국 국세청에 동시 범칙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미국 국세청은 최근 큰 틀에서 협조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 국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의 미국 내 부동산 등 세무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 등에 대해 막판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최소 5건으로 구입 당시 가격은 145억원에 이른다. 이들 부동산은 모두 유 전 회장 본인이 아닌 자녀와 회사 명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주 북부 웨체스터카운티의 저택(차남 혁기씨 명의), 뉴욕 맨해튼 남서쪽 주택가의 아파트 1채,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디 부동산(이상 혁기씨 부부 명의) 등이다.

뿐만 아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유 전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344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이 이번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 시가로 1000억원이 넘는 유씨 일가의 재산이 동결 조치된다. 이는 유씨 범죄 혐의 금액 1291억원의 81%가량이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대법 "공정위 고발없는 불법 하도급 기소 못해"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준 업체라 하더라도 필수요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며 "공정위 고발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현대중공업서 17억원 챙긴 前한수원 부장 징역 12년

법원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7억원을 받은 송모(49)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송 부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내렸다.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4억3050만원은 원심과 같다.

송 부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정모(58) 전 총괄상무 등 임직원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와 대체교류 발전기 납품과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수원의 구매부서 책임자라는 소위 '갑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업체에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유혜은 기자 euna@



오늘 초복 초복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삼계탕집 앞에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내부 사업 입찰비리 의혹 검찰, 가스공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한국가스공사가 내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 입찰 비리가 벌어진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를 확보하고 공사 소속 김모 차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김 차장은 2011년 도시가스요금 산정 기준을 부피에서 열량으로 바꾸기 위해 발주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낙찰받을 수 있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다른 연루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금감원, 소액채권 담합 증권사 11곳 '기관주의' 경징계

담합 관여한 직원은 감봉·견책

금융감독원이 대우증권 등 증권사 11곳에 대해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한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금리 담합을 주도한 대우·대신·신한금융투자·NH농협·하나대투·한국투자·현대 등 11개 증권사에 대한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기관주의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 위법 내용 공표 요구, 기관경고 등 기관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다.

담합에 관여한 해당 증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봉이나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매수를 대행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순 추종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제재하지 않았다.

대우증권 등 11개 증권사는 지난 2004년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지방도시철도채권 등의 할인 이율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1월 국내 증권사 20곳에 대해 2004년부터 6년간 '1종 국민주택채권'과 '지방도시철도채'권 등 소액채권의 판매가격을 정하기 위해 금리를 담합해 4000억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며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중순 조치를 받은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다만 다수의 증권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금감원 차원의 제재논의는 고법 판결 이후로 유예했다.

지난 5월23일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가, 지난달 11일에는 8개 증권사가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달중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해 3개사의 판결이 남아있었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번 징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가 2004년에 매매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의 금리차이를 40bp(1bp=0.1%포인트)수준에서10bp 안팎으로 좁힐 것을 권고해서 접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예 기자 sysy@

"지상파TV 시청권, 헌법상 권리 아냐"

법원 "SO 재송신 책임 없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권'은 헌법과 관련 법령으로부터 바로 인정되는 별도 권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시청자 김모씨 등 17명이 CJ헬로비전 등 3개 SO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O들은 지난 2012년 1월 16일부터 이튿날까지 28시간 동안 KBS2 방송 동시 재송신을 중단했다. 이는 SO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청자의 '시청권'이라는 별도 권리는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 소비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언급한 소비자기본법 4조 등으로부터 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한국투자저축은행 경력직 텔러 모집

여성직장 재탐색

(주)한국투자저축은행이 경력직 텔러를 채용한다.

직무내용은 은행 텔러 사무보조로 창구 및 출납을 담당한다.

소정의 입사지원서를 방문·우편·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지원시 학력은 관계없으나 1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근무예정지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4가에 위치하고 있다. 인근전철역은 수도권 1호선 종로5가역이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문의 031-788-4075

유혜은 기자 euna@

모집요강

모집직종	텔러
직무내용	창구 및 출납
접수마감일	2014년 7월 23일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4개월
경력조건	1년 이상
학력	학력무관
우대사항	인근거주자



공병호의 독서산책

스티븐 에모트 '100억명 어느 날'

넓은 시각에서 지구 문제를 바라보도록 돕는 책이다.

불과 1만년 전에는 지구에 100만명이 살고 있었다. 200년 전에는 10억명, 50년 전에는 30억명, 지금은 70억명이 살고 있다. 2050년쯤에는 90억명이 살게 될 것으로 보이며, 21세기가 끝날 무렵이면 100억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을 축으로 해 그래프를 그려 보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인구는 수직선을 그릴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 책은 문제 발생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구의 당면 과제들을 쉽게 정리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저자는 확신을 갖고 말한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 초기 지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에 머물고 있었지만 2013년에는 400ppm으로 상승했다. 세계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425~450ppm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 고민이다. 저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 기원전 8000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역시 수직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는 '생물종의 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그렇게도 중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생물종의 다양성이 가진 중요한 기능 때문이다. 생물종의 다양성은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지구의 여러 기능을 형성해 제공하는데 그런 기능에는 수많은 '생태계 서비스'도 포함된다. 여기서 생태계 서비스는 물, 식량, 기후처럼 자연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생물종의 다양성이 훼손되면 결과적으로 생태계 기능도 훼손되고 만다. 이는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생태계 서비스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생태계 서비스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됨을 뜻한다.

1만년 전 100만명 살던 지구
21세기 끝날 무렵엔 100억명
온난화·물 부족·에너지 고갈…
지구의 문제, 어떻게 풀까

물 소비 급증에 따른 물 부족을 경고하는 이야기는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인류의 물 소비량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연간 600㎥/㎞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는 적게 잡아도 연간 4000㎥/㎞까지 치솟고 있다. 2015년에는 연간 최소 6000㎥/㎞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물 증가량은 인구 증가율의 두 배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고속 증가의 이면에는 '숨겨진 물'이 있기 때문이다. 숨겨진 물은 일반적으로 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상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물을 말한다. 대부분의 상품이 여기에 속하는데 예를 들어 햄버거를 보자. 햄버거 한 개를 만드는 데는 3000ℓ가량의 물이 사용된다. 초콜릿 1kg 생산에는 2만7000ℓ가량의 물이 필요하며 닭고기 한 마리를 생산하는 데는 9000ℓ가량의 물이 사용된다. 지구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건 전형적인 '공공재의 비극'에 해당하는 까닭이다.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에너지 문제도 심각한 경우 중 하나다. 차세대 실리콘 태양전지(태양열 전지판)를 만들려면 수많은 금속과 희토류를 집중적으로 채굴해야 한다. 이런 금속을 채굴하는 자체가 전혀 환경친화적이지 않다.

저자는 에너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원자력 발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지구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소책자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손동영의 CSR 이야기



한국SR전략연구소장
배재대학교 겸임교수

탄소배출권 거래제, 오히려 기회다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들은 지난 15일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유보를 주장했다. 다음날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선 '2015년부터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제조업 연매출 감소액이 최대 29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내용의 자료가 배포됐다.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기업들이 이렇게 걱정을 쏟아내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무엇인지, 왜 시행되는지, 지금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류 문명사는 지구의 자원을 소비하는 역사였다. 특히 산업혁명 이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석탄과 석유를 태웠다. 거기서 산업 에너지를 얻었고 그 대가로 온실가스 가득찬 지구에 살게 됐다. 오염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로 이어졌고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 더 이상 기후변화를 방치하다간 인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어떻게든 바꿔 보려는 시도 중 하나다. 출발은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이다. 1988년 '지구온난화'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시작됐고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성사시켰다. 이어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가지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목표를 담은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미국의 비준 거부로 우여곡절을 겪은 교토의정서는 2005년 유럽 탄소배출권시장(ETS)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 공식 출범했다. 무려 20년 만의 일이다.

이름 그대로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권리'라고 표현돼 있어 오해를 일으키지만, 그 권리는 규제의 또 다른 표현이다. 먼저 각국 정부는 기업들에 탄소배출권을 나눠 준다. 지금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량보다 적은 권리를 나눠 준다. 정해진 기간 중 배출권보다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기업에 정부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을 피하려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권리가 남아도는 기업, 숲을 조성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기업들로부터 돈을 주고 이 권리를 사야 한다. 정부는 배출권 할당을 통해 기업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배출한도를 제시한다. 기업들이 장기 계획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란 뜻에서다.

지구를 살리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저항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미 2013년 시행할 계획을 세웠지만 산업계의 반발에 밀려 2년간 늦춘 바 있다. 산업계는 다시 2020년 이후로 시행 연기를 주장한다. 사실상 도입 무산이다.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실질적 효과가 없는' 제도로 규정하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배출 규제 완화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한국만 강행하겠다는 건 난센스"란 입장이다.

기업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엄청난 짐이 되기만 하는 걸까. 탄소배출권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실천하는 기업이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으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오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 발전소의 탄소배출을 대폭 축소키로 하는 등 대부분 국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감축 노력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규제는 강화되고, 그에 맞춰 새로운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중국이나 미국보다 먼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맞이하는 우리 기업들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선다면 이 분야의 리더가 된다. 투자의 결실은 탄소배출 감축뿐 아니라 재생 가능 에너지 등 미래 전략업종에서 경쟁우위로 이어질 수 있다. "왜 우리만 먼저 하느냐"는 볼멘소리 대신 "먼저 시작해 경쟁력을 키우자.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자"는 공세적 목소리가 필요하다.

일부 기업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협력업체 30곳과 탄소배출권 사업에 대한 상생협력 관계를 약속했다. 협력업체들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해 나간다고 한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에 좀더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물러서는 건 아닐까.

온라인 와글와글

남자 청소년들 성형 관심…"여자 닮아가게?"



○…남자 청소년 2명 중 1명은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들은 "남자 아이돌이나 배우들 보면 코 수술 정도는 기본인 듯", "내 주위에도 성형한 남자 친구들 많은데", "이제 남자도 성괴(성형괴물) 시대인가. 사회가 이상해진 듯", "남자의 매력은 박력과 단호함인데 뭔가 약해 보인다", "여자들의 성형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을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곧 여자도 남자도 다 똑같이 생기는 날이 얼마 안 남았네"라고 해시선을 끌었다.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이후 최대 1시간의 낮잠시간을 운영한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집에나 일찍 보내주는 게 어떨까"라고 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이 밖에도 "관공서 여기저기로 파견을 다녀봤지만 점심시간에는 전부 자더라", "갈수록 공무원들만 좋아지네", "가장 바쁠 시간대에 공무원들이 민원을 받아야지", "점심시간에 한 이십 분 자면 저녁 때까지 쌩쌩하긴 하더라", "밤새 술 먹던 주당들만 살판 나겠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우람 기자 hura@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1.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누가 쐈나?… 우크라 반군 유력
2. 광주 헬기추락, '탑승자 전원 사망'… 블랙박스 분석 착수
3. 美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러 미사일 격추가능성 무게"
4. 서울시 1시간 낮잠 허용… 연장근무도 1시간
5. 삼성 vs 현대차 '땅 전쟁' 본격화… 왜?

오늘의 BAE 배국남.com

www.baekn.com

tvN 농디컬드라마 '황금거탑'



배국남닷컴은 17일 tvN '황금거탑' 제작발표회 현장에서 최종훈, 김재우, 샘 오취리, 구잘 등을 만났다. 23일 첫 방송되는 '황금거탑'은 tvN 군디컬 드라마 '푸른거탑'의 출연진과 민진기 PD가 뭉쳐 만든 농디컬 드라마로, '거탑마을'을 배경으로 농촌 이야기를 펼쳐낸다. 최종훈은 이날 농촌을 소재로 삼은 점과 관련해 "농사는 생업과 관련된 일이다. 그래서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한다. 물론 농사가 정말 힘든 일이지만,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재우는 "'푸른거탑' 촬영 당시 출연진은 최대한 웃음을 잃지 않고 온몸이 부서져라 임했다. 이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재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종훈은 "처음 '황금거탑' 대본을 받고 캐릭터에 대해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아 어려웠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종훈은 "'말년병장'이라는 캐릭터에 연장선상으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이번에는 최종훈이 대변하는 40대 농촌 노총각을 보여 드리겠다"며 "급격한 캐릭터 변화는 우려스러웠다. 캐릭터의 성장을 보여 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구잘은 "제 대사 중 사자성어가 정말 많았다. 연기를 하려면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사전도 찾아보고 주변에 물어보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캐릭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민진기 PD는 샘 오취리의 활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샘 오취리가 극 초반 가장 눈길을 끄는 캐릭터가 될 전망"이라며 "그의 멋진 미소에 순수함이 잘 드러난다. '황금거탑'은 기존에 없던 콘셉트를 가장 많이 추구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데스크 칼럼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 갈등



김 덕 헌
금융시장부장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논의가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예상대로 '2·17 합의서'를 작성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조기 통합 발언이 나왔다.

그동안 하나금융은 하나·외환은행 통합 발언을 금기시해 왔다.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그렇다고 조기 통합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마음이야 하루라도 빨리 통합하고 싶지만 5년간 독립경영을 약속했으니, 조기 통합의 명분도 약하고 외환은행 노조 반발 때문에 속만 끓여왔다.

그렇다고 하나금융이 손만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통합하고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 카드사업의 통합작업도 9부 능선을 넘어섰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별안간 조기 통합 속내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제 통합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 "나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두 은행의 행장, 직원, 이사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라며 조심스럽게 조기 통합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회장은 조기 통합의 명분으로 수익 감소를 내세웠다. 외환은행 인수 이전인 2011년 하나은행은 1조2070억원, 외환은행 1조622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양 은행은 6550억원, 3600억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지난 11일 하나·외환은행 임원 워크숍에서 3년 빨리 통합하면 1조원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조기통합 대박론'을 어필했다.

양 은행이 합병하면 단숨에 리딩뱅크로 올라 설 수 있는데,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인 것 같다.

김한조 행장도 조기 통합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2·17 합의서가 외환은행의 독립경영과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해 주는 '종신보험'이 아니라며 직원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또 통합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조기 통합 기회를 통해 고용 보장과 직원복지를 더 얻어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며 외환은행 맏형 입장의 충고도 한다.

하나·외환은행 이사회는 지난 17일 조기 통합에 대해 'OK 사인'을 하면서 양 은행의 합병작업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하나·외환은행이 통합에 이르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외환은행 노조의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합병을 위한 협상을 하자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지만 노조는 합병을 전제로 한 협상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노사간 협상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외환은행 노조는 앞으로 법정 소송과 파업 등 강경 투쟁을 밝혔다.

아직 관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입장도 양 은행 통합의 변수다.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7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약속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와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향후 정치권과 여론이 악화될 경우 어떤 쪽이든 나설 수밖에 없어 하나금융 입장에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도 관심사다. 하나금융은 법률자문 결과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외환은행 노조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조기 통합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에 대한 노사간의 간극(間隙)이 너무 커 보인다. 김 회장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고, 외환은행 노조는 협상 얘기라면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다.

지금은 조기 통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서로 존중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약속과 현재의 결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미래 비전을 위해 노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은 저금리, 저성장, 저수익의 3저(低)에 빠져 있다. 이 상황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외환은행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도 미약하다. 김정태 회장과 외환은행 노조가 힘을 합해야 하는 이유다. dhkim0715@

박엘리의 톡톡톡

카드 포인트 잘 쓰고 계신가요?



경제활동 인구 한 명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평균 4장이라고 하는데요. 저 역시 4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또 자주 쓰는 만큼 포인트가 쌓이고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사실 예전에는 포인트 쓰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카드를 결제할 때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가맹점 찾기가 힘들었고 막상 쓴다 해도 1000점 이상 포인트를 쌓아야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허들 규정 때문에 사용이 막히기 일쑤였습니다. 카드를 해지할 때도 남은 포인트는 당연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 사라지는 포인트가 지난해 1300억원이 넘고, 이것이 모두 카드사의 수입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영세가맹점의 IC카드용 단말기 교체를 위해 카드사로부터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입니다.

'고객이 가져갈 자산을 너희(카드사)가 먹지 않느냐'는 불신은 카드사들에게 아픈 속살을 건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의 '낙전수입' 논란은 상당 부분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사들이 포인트 사용 제약을 없애고 1포인트만 쌓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소멸 포인트 개선 방안에 수긍하는 분위기 속에 현대카드만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현대카드의 경우 포인트를 기프트카드로 교환할 때 '1포인트=1원'이 아닌 '1포인트=0.67원'이라는 환가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15만점의 포인트가 쌓여야 1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로 교환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는 타사와 포인트 적립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타사 포인트 제도는 포인트를 적립한 가맹점과 포인트를 쓴 가맹점이 달라 비용부담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현대카드는 포인트 사용처에서 비용을 분담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프트카드는 교환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포인트 전환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금융당국도 카드사 고유의 마케팅 전략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선택은 고객의 몫이라는 현대카드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1포인트=1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현대카드에서도 이 같은 회사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포인트 얘기가 나오면 현대카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포인트 사용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M포인트는 3만4000여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포인트 소진율이 연간 95%에 달하고 있다면서 말이죠. 작은 포인트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포인트 사용처를 늘려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카드사들이 포인트 사용 제한을 없애는 것과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는 것,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카드사들이 부당한 이익을 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어지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시장부 기자 ellee@

객석

복사꽃 핀다



김 영 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팽목항에 비 내리고 복사꽃 핀다

거친 파도 맹골수도에 갇혀서도 서로의 손 꼭잡고
"미처 말못할까봐 보내논다. 엄마 사랑해"

끝끝내 너희들 곁을 지켜낸 선생님들
어둠속에서 서로서로 부둥켜안고 흔들리지 않았다

어둠바다 흩어진 252개의 꽃잎들
정조시간(靜潮時間)마다 다시 모인다

팽목항에 봄이 오고 복사꽃 핀다

마지막이라도 너희 얼굴 외롭지 않았다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어둠속에서 복사꽃 핀다
지난 겨울은 달콤했으나 그리 길지 않았다
그 추위 속에서 엄마의 사랑으로 싹트고
아빠의 땀방울로 망울졌으니

모두 버리고 사랑만 남은 너희들
이제 살아남은 자에게 사랑은 의무다

너희들은 이제 싸늘하게 식은 몸을 덮혀갈 것이다

뛰어놀던 단원고 교정에 봄이면 봄마다
복사꽃 핀다

발을 붙들어 맨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도 끝이 났다
애타게 기다리던 객실에는 구조의 손길이 와 닿지 않았다

그리하여 너희는 죽음의 그림자를 만났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에게 사랑의 봄볕을 남겼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0분
사랑만 남은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복사꽃으로 부활하였다

기자의 눈

은행 민원 '가는 말과 오는 말'



신 태 현
금융시장부/holjjak@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행원 김모씨는 최근 본점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한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에 대해 직접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다. 해당 고객이 "김 행원에게 모멸감을 느꼈다"며 직접 찾아와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오전에 있었던 작은 소란 때문이었다. 이 민원인은 김 행원이 근무하는 지점 한편에 비치된 고객 응대용 사탕 바구니를 탈탈 털어 자신의 가방에 넣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김 행원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용히 다가가 "어머님, 다른 고객분들을 위해 한 개만 가져 가세요"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러자 이 민원인은 마음이 상했던지, 손에 움켜지고 있던 사탕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나를 지금 무시하느냐"고 소리쳤다. 이내 해당 지점은 이 민원인의 고함으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당황한 김 행원은 사은품을 손에 쥐여주며 사태를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다. 다소 화가 풀린 민원인의 모습에 김 행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 민원인은 본점에 민원을 넣어 재차 사과를 받고자 했다. 김 행원은 내심 억울했지만 고객을 찾아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업종 특성상 은행원들은 고객에게 함부로 언성을 높일 수 없다.

특히 젊은 여행원의 마음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미소를 짓다가도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고성을 듣고 눈물을 훔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행원들은 애로를 토로한다. 은행 입장에선 감정적이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고객이더라도 이미지를 고려해 쉬쉬하며 넘어가기 일쑤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했던가. 고객과 직원 모두 고운말만 오고 갈 수 있는 은행 지점을 기대해 본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 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이종재 광고국장 임영재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정치경제부 (02)799-2655 시장부 (02)799-2658 금융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사회생활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국제경제부 (02)799-2650 사진팀 (02)799-263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03 / 260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아픈 몸은 깨달음을 위한 좋은 도구
아프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아픔과 함께 잘 살아가는 법' 영성 분야 최고 권위의 노틸러 북 어워드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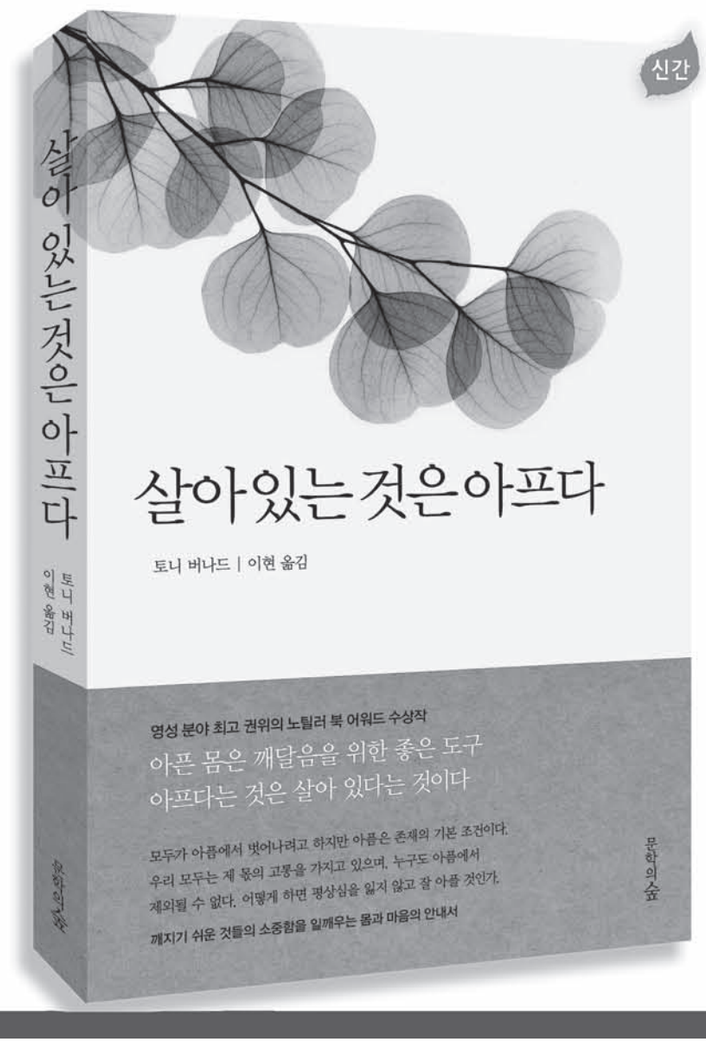
인생의 정점에서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 쓰러진 법대 교수의 감동적인 실화. 그녀는 한순간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상실은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 되었다. 영혼에 대해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는 똑같은 평정심을 가지고 인생의 춤과 함께 진정으로 '존재하는' 법에 대한 안내서

깨지기 쉬운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몸과 마음의 안내서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 이현 옮김 | 236쪽 | 13,500원

문학의숲 당신을 닮은 좋은책 TEL 02)325-5676



"임직원 위해 일일 바리스타 변신했죠"

이석구 스타벅스 대표 '일일 별별다방' 이벤트
한국 진출 15주년 맞아 8주간 24개 매장서 진행
매장 전직원 워크숍 지원·감동 스토리 공모전도



14일 수유역점을 깜짝 방문한 이석구 대표이사가 바리스타로 변신해 직접 준비한 커피 테이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임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이석구 대표가 바리스타로 깜짝 변신했다.

스타벅스는 한국 진출 15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을 위한 커피 교실을 진행하는 '일일 별별다방'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일일 별별다방' 이벤트는 행복추진파트에서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벌이는 다양한 임직원 감동 이벤트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이벤트를 통해 이 대표는 사전 예고없이 매장을 방문, 근무 중인 임직원들에게 직접 준비한 커피 테이스팅을 실시하고 감사 카드와 15주년 기념 선물을 증정한다. 커피 테이스팅이 진행되는 동안 행복추진파트 소속 임직원들이 동료들을 위해 근무를 대신한다. 이 대표의 '일일 별별다방' 이벤트는 지난 14일 수유역점, 종로2가점, 경희대점을 시작으로, 총 8주간 전국의 24개 매장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다양한 임직원 감동 이벤트도 마련했다. 8월 13일까지 매장의 전직원들이 재충전을 위한 워크숍을 갈 수 있도록 인근 지역 매장의 다른 임직원들이 근무를 대신해주는 '리스트레토 스토어 어택(ristretto store attack)'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는 하루 3교대로 근무하는 매장 특성상 같은 매장 직원끼리도 한 자리에 모여 팀워크를 다질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 이 대표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행사다.

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근무 경험과 사연을 응모받는 '감동 스토리 공모전', 본인이 직접 개발한 '나만의 음료 컨테스트' 등도 마련됐다.

이석구 대표는 "오늘날의 스타벅스가 있기까지는 6500여명의 전직원들의 열정과 노고가 있었다"며 "그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회사가 성장하는 데 기여해 준 직원들에게 보답하며 직원이 더욱 행복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는 1999년 7월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개점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해왔다. 현재 650여 매장에서 65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매일 30만명의 고객들을 맞이하며 커피문화와 열정을 나누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

대학 강연료 1분당 287만원

힐러리 '슈퍼甲' 구설수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예비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사진〉 전 국무장관이 강연과 관련해 '슈퍼갑' 행세를 해온 사실이 문서를 통해 입증됐다.

워싱턴포스트(WP)와 데일리 콜러 등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16일(현지시간) 힐러리 측 대행사가 지난해 뉴욕주립대(SUNY) 버팔로 캠퍼스와 라스베이거스의 네바다대학 등 2곳과 패키지로 체결한 총 50만달러(5억1600만원 가량) 규모의 강연 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힐러리 전 장관은 지난해 8월과 올해 8월 이들 학교에서 90분씩 강연을 하는 대가로 각각 27만5000달러와 22만5000달러를 받기로 했다.

액수도 액수지만 더 심한 것은 각종 조건이다.

힐러리 측은 뉴욕주립대 강연 계약에서 대통령이 사용하는 유리 패널 프롬프터를 제공하고 연설 도중 어느 누구도 연단에 올라올 수 없으며 질의자를 자신들이 직접 지명한다는 요구를 관철했다. 연설과 리셉션 등 모든 행사는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되고 무대의 세트와 배경, 배너, 로고, 각종 장치 등은 물론 강연의 주제와 길이 등을 전적으로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계약서는 특히 힐러리 측에 이유를 불문하고 언제든 사전에 강연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밖에 두 학교 모두 20장씩의 귀빈용 티켓을 힐러리 측에 제공하고 힐러리가 개인적으로 기록에 남기기 위해 필요한 속기사 비용(각각 1000달러 이상)도 학교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아직 강연이 이뤄지지 않은 네바다대학 학생들은 힐러리 측에 고액 강연료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수업료가 최근 10년간 3배나 뛰었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한화건설 "안전환경경영 정착" 앞장

한화건설은 '원칙준수, 상생안전'을 슬로건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에 나섰다.

한화건설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9년과 2010년 'OHSAS18001' 인증과 'KOSHA18001' 인증을 각각 획득한 바 있으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건설업 KOSHA 18001 협의회'의 회장사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올해 4월 안전행정부와 동탄A21블록 꿈에그린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의 발대식을 갖고 '안전 착착착' 포스터를 제작해 국내외 전 현장에 부착하는 등 건설업계의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화건설은 안전보건예방점검을 강화해 상시 점검체제를 유지하면서 특별 예방점검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 현장의 사전 위험성 평가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매월 현장별 성과를 공지함으로써 현장 간 발전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강영관 기자 kwan@

美 사상 첫 女전투사령관 탄생

신임 태평양공군사령관에 로리 로빈슨 중장 내정



신임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에 여성이 사상 처음으로 내정됐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임 태평양공군사령관에 공군전투사령부 부사령관인 로리 로빈슨〈사진〉 중장을 내정했다고 16일 보도했다. 그는 이번 보직 내정과 함께 4성 장군으로 승진한다. 미국 역사상 전투 사령관 보직에 여성이 내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빈슨 내정자는 미 공군에서 재닛 울펀바거 군수사령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4성 장군이다. 2012년 임명된 울펀바거 사령관은 지금까지 전투 부대에 배치되지는 않았다.

로빈슨 내정자는 뉴햄프셔대 학군단(ROTC) 출신으로 1982년 공군 장교가 됐으며 2007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공중전 지휘통제관에 올랐다. 또 공군무장학교 교관, 552 항공통제비행단장, 17 훈련비행단장, 공군장관실 법무연락단장, 공군중부사령부 부사령관, 공군전투사령부 부사령관, 공군전투사령부 부사령관 등 야전군 지휘관과 지휘본부 참모 보직을 골고루 거쳤다. 공군 405 원정비행단 부사령관을 맡을 당시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출격하기도 했다.

부군 데이비드 로빈슨 역시 소장으로 퇴역한 전형적인 공군 집안이다. 아버지와 남자 형제 2명 역시 공군에서 복무했다. 남편 데이비드 로빈슨도 공군 소장으로 퇴역했다. 2005년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딸 타린 로빈슨은 비행훈련 사고로 순직했다.

이달 초 미 해군에서는 미셸 하워드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는 등 최근 미군 내 여성들의 4성 장군 진급이 잇따르고 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한국가스공사가 후원하는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팀이 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운동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스公, 동티모르 축구 꿈나무 키운다

유소년 축구팀 7년째 후원

한국가스공사가 후원하고 있는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팀이 입국, 경기도 안산에 베이스캠프를 차렸다. 오는 8월부터 이란에서 열리는 AFC U-14 챔피언십 본선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팀의 국내 훈련은 2008년부터 한국가스공사의 도움으로 7년째 이어오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경기지역본부 축구장 이용은 물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축구팀의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축구화, 축구공, 유니폼 등 각종 축구용품도 후원하고 있다.

최빈국에 속하는 동티모르가 아시아 유소년 축구의 다크호스로 부상한 것은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를 위해 젊음을 불사른 김신환 감독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0년 영화 '맨발의 꿈'으로 잘 알려진 김신환 감독은 동티모르 축구학교 건립을 추진하며, 현지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쉼 없이 전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국제가스업계 최대 행사인 WGC 2021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WGC 2021 유치국은 국제가스연맹(IGU)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되는데 동티모르 역시 회원국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에쓰오일, 광주 헬기 순직 소방관 유족에 위로금

에쓰오일은 17일 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5명 소방관 유족에게 위로금 1억5000만원(각 3000만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 소방관은 지난 14일부터 진도 팽목항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벌이다 이날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헬기 탑승 사망자는 강원도 특수구조단 조종사 정성철 소방경, 조종사 박인돈 소방위, 정비사 안병국 소방장, 구조대원 신영룡 소방교, 구조대원 이은교 소방사다.

에쓰오일은 2006년부터 소방방재청과 함께 '소방영웅 지킴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지난 9년간 42명의 순직 소방관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소방관과 가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이강현 국립암센터 신임 원장 선임



제6대 국립암센터 신임 원장에 이강현 국립암센터 전립선암센터장(60·사진)이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이 원장은 1980년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원자력병원 비뇨기과장, 서울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후 국립암센터 설립 초기부터 참여해 부속병원장, 이행성 임상제2연구부장, 전립선암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 원장은 부속병원장 재직 당시 양성자치료 개시, 검진센터 개설, 로봇수술기기 도입 추진 등 진료기능 확충을 통해 병원의 질적, 양적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성제 기자 psj@

장태화 前 서울신문 사장 별세



장태화〈사진〉 전(前) 서울신문 사장이 지난 17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6세.

경북 칠곡 출생인 고인은 일본에서 유학한 후 육군본부 정보국장 고문 등으로 일하다 5·16 군사 쿠데타에 가담했다. 이후 중앙정보부장 고문과 공화당 의정 고문 등을 거쳐 1965~1972년에 서울신문사장(12대)과 한국신문발행인협회 이사장 및 한국신문협회장 등을 지냈다. 서울신문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선데이서울'을 창간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장녀 세옥씨와 아들 세진씨가 있다. 빈소는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 오전 6시 30분이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인사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 강승석

◆보건복지부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권덕철 △사회복지정책실장 김원득 ◇국장급 △대변인 임종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준균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최성락 △보건산업정책국장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김원종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곽숙영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김헌주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임인택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이기일 △인구정책실 연금정책국장 조남권 △보건복지부 근무 양성일

◆환경부 ◇국장급 승진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정복영 ◇전보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대기정책과장 김법정

◆서울시 ◇4급 전보(행정직) △언론담당관 이희승 △조직담당관 김용남 △아동청소년담당관 김영기 △조사담당관 임동국 △마곡사업담당관 마채숙 △희망복지지원과장 남길순 △자활지원과장 권용호 △관광정책과장 이기완 △총무과장 이혜경 △인사과장 김영환 △행정과장 이대현 △행정국 고승효 △행정국 김명용 △자산관리과장 박철규 △계약심사과장 김연중 △세제과장 김경탁 △행복4구추진반장 송희수 △SH공사협력관 유경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해철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정진일 △마포구 전출 양재연 △중랑구 전출 신시섭 △중구 전출 박희균 △중랑구 전출 박영헌 △대외협력담당관 직무대리 김수덕 △경영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나병우 △민원해소담당관 직무대리 이우룡 △어르신복지과장 직무대리 하영태 △도시철도공사협력관 직무대리 문윤기 △생활환경과장 직무대리 심상원 △서울장학재단 파견근무 김현규 △한양도성도감 직무대리 심말숙 △ICLEI총회추진반장 겸임 해제 최영수 △ICLEI총회추진반장 송호재 ◇4급 전보(기술직)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자연생태과장 최윤종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 배호영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보도환경개선과장 최동필 △도로관리과장 이택근 △물재생계획과장 최진석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상영 △강서도로사업소장 조병준 △도시재생추진반장 임창수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구로구 전출 이진용 △공공디자인과장 박내규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임대주택과장 양용택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장 이병석 △강남구 전출 배경섭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정규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차윤기 △식품안전과장 김종철 △건강증진과장 이미경 △어린이병원 간호부장 박흥심 △역사도심관리과장 김해성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장 김우성 △하천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용학 △재정비과장 직무대리 송만규 △동작구 전출 이학구 △한옥조성추진반장 직무대리 문인식 △재생재원과장 직무대리 임인구 △광진구 전출 이기배 △성북구 전출 김장수 ◇인사교류 및 승진임용 권고 △중랑구 전출 서봉석 △성북구 김장수

◆국민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정원교

◆아시아타임즈 △인천취재본부장 유기동

◆브릿지경제신문 〈본부장〉 △마케팅본부장 겸 광고국장 김진택 〈국장〉 △독자서비스국장 김용술 〈국장대우〉 △편집국 부동산부장 겸 문화부장 방형국 〈부국장〉 △편집국 문화부 골프전문기자 오학열 〈부장〉 △광고국 이국형 전용배 〈부장대우〉 △편집국 문화부 박길명

◆TV조선 △편성실 부실장 겸 편성기획팀장(부국장) 이현동 △편성운영팀장 원종현

부음

▲최성남(태인수표교회 목사)씨 모친상, 석창일(전 한국CCNR 사장)씨 장모상 = 17일, 전남 동광양 장례식장, 발인 19일 오전 8시, 061-795-7700

▲임덕재(KBS청주방송총국 심의위원)씨 모친상 = 16일 오후 11시,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무궁화 1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043-298-9200

▲백중현(매일일보 서울본부장)씨 모친상 = 인천 한림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 032-543-2444

대중음악의 진화를 본다 ROCK FESTIVAL



Cover Story

**"너무 즐겁지요.
나 같은 늙은이도 강렬한 사운드 록을 들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찾았어요."
2013년 8월 14~15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슈퍼소닉 2013' 공연장에서 만난,
입장 밴드를 손목에 두른 70대 중반의 한 할머니 관객은
록페스티벌이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일시에 부숴버렸다.
록페스티벌은 이제 10~30대 젊은이들만의 공연이 아닌
다양한 세대가 즐기는 음악축제로 자리잡았다.**

2014년 여름이 찾아왔다. 이 말은 2014 록페스티벌의 열기가 뜨거워진다는 이야기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록페스티벌 규모나 분위기는 영향을 받았지만, 올해도 여전히 록페스티벌의 관심은 달아오르고 있다.

록페스티벌은 이제 하나의 록마니아와 젊은이들만의 음악 축제를 넘어 다양한 세대의 문화와 여가의 소비공간이자 음악의 트렌드와 다양성을 확장하는 촉발제다. 1969년 8월 15~17일 미국 뉴욕 북부 베델 근처의 화이토 레이크의 한 농장에서 존 바에즈 등 유명 뮤지션과 30만명의 젊은이가 몰려 음악축제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대사건으로 기록된 '3 Days of Peace & Music' 구호의 미국 우드스탁 페스티벌('The Wood stock music and art fair 1969'), 그 후로 30년이 흐른 1999년 7월 3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Triport Rock Festival)'. 한국의 본격적인 록페스티벌의 신호탄이었다.

"국내 음악시장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밴드 음악이 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어요. 페스티벌을 통해 훌륭한 밴드들을 배출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죠."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Triport Rock Festival)'을 기획한 에스컴이엔티의 윤창중 대표의 말이다.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Triport Rock Festival)'로 열린 록페스티벌의 15년 역사에서 공연 기획의 미진함에서부터 국내외 뮤지션의 유치를 둘러싼 과당 경쟁으로 인한 티켓가격 상승까지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진화를 거듭해온 록페스티벌은 이제 소비하는 수용자와 참가하는 뮤지션, 모두에게 의미있는 음악과 문화의 지평을 확장하는 기제이자 한국 대중음악의 질적 완성도와 음악 소비 수준을 상승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공연 등 문화산업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K-POP 한류의 기폭제 기능도 하고 있다.

**국내 록페스티벌은 1999년 열린 '트라이포트'가 신호탄
젊은이의 전유물서 세대 뛰어넘은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해외 유명 뮤지션 참여… 한국 공연문화·K팝 발전 촉매제**

록페스티벌은 음악과 공연적인 측면에서 아이돌 위주의 K-POP의 장르적 확장과 음악의 질적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록페스티벌에서 국내외 세계 유명 뮤지션을 통해 록을 비롯한 다양한 수준 높은 음악을 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역량 있는 국내 록 뮤지션들이 록페스티벌을 통해 존재감을 알리고 이들이 한국 음악의 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양한 록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는 YB의 윤도현의 입장이다.

록페스티벌은 방송 중심의 음악에서 공연 중심의 음악으로의 전환을 꾀해 음악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공연문화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결정적인 기제가 됐다. 공연 기획에서부터 공연 진행까지 매우 후진적이었지만 록페스티벌을 주최하면서 한국 대중음악의 공연문화는 도약했다. 예스컴이엔티의 윤창중 대표는 "대중음악 뮤지션의 공연문화는 록페스티벌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할 만큼 록페스티벌은 한국 공연문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아이돌 음악에서 맛볼 수 없는 다양한 록음악과 수준 높은 해외 유명 뮤지션을 보는 것만으로 음악에 대한 이해와 수준을 높일 수 있다"(김미진·22·대학생), "록페스티벌에 참가해 2박3일을 보내고 나면 1년간 직장생활을 버틸 힘을 얻는다. 록페스티벌은 여가문화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임혁·34·직장인), "록음악을 잘 몰라도 록페스티벌에 참가하면 뮤지션과 관객들의 젊음을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젊은세대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어 좋다"(김진국·51·변호사)….

다양한 연령대의 록페스티벌 관객의 말처럼 록페스티벌은 이제 단순한 음악 축제가 아닌 생활의 한 부분, 여가문화의 한 흐름을 형성하는 축제로 자리잡았다.

올해도 이러한 기능과 역할, 의미를 담보하는 다양한 록페스티벌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국내 3대 록페스티벌 중 하나인 '안산 밸리 록페스티벌'이 취소됐고,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열리지 못하지만 '인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현대카드 시티 브레이크', '고양 락&페스티벌', '슈퍼소닉 2014' 등 다채로운 록페스티벌이 관객들의 가슴에 음악의 열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여러분! 올 여름 록페스티벌의 열정의 바다에 빠져보지 않겠습니까?

배국남 기자 knbae@
사진 장세영 기자 photothink@

커버스토리 18·19면

펜타·고양·슈퍼소닉… 뜨거운 3주, 너안에 '樂' 있다



미리보는 록페… 현황과 라인업

8월의 주말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8월 1일부터 16일까지 3주간의 주말은 록페스티벌을 1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이 뜨겁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시간이다.

올해는 예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국내 3대 록페스티벌 중 하나인 '안산밸리 록페스티벌'이 취소됐고,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은 주최 측의 사정으로 열리지 못한다. 예정대로 진행되는 록페스티벌은 '인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이 유일하지만, 록페스티벌 마니아들을 만족시킬 또 다른 록페스티벌이 준비됐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먼저 만날 록페스티벌은 '펜타포트'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펜타포트'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총 100여팀과 인천을 뜨겁게 달군다.

1일에는 리지보든, 텐던시즈가 무대를 꾸미고, 헤드라이너 이승환의 공연이 준비됐다. 둘째 날에는 카사비안, 보이스라이크걸스, 이디오테잎, 장미여관 등이 등장, 다양한 장르가 조화롭게 구성됐다. 마지막 날에는 스타세일러와 트래비스의 떼창을 준비해야 한다. 국내 팀으로는 장필순, 조동희, 오소영의 조인트 무대가 구성되고, 어반자카파, 킹스턴루디스카, 불독맨션 등도 마지막 날에 참여한다.

둘째 주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고양 락&페스티벌'과 '현대카드 시티브레이크'의 공연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 록씬에 무한애정을 가졌다면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K-POP 아레나 부지에서 열리는 '고양 락&페스티벌'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 김사랑, 딕펑스, 네미시스, 브로큰발렌타인, 내귀에도청장치, 델리스파이스, 김바다, 몽니, 윈디시티 등 국내 대표 밴드들이 대거 출연을 결정, 6년 만에 컴백한 신해철이 헤드라이너로 등장한다.

하드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즐기고 싶다면 8월 9,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시티브레이크'를 즐기자.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현대카드의 '시티브레이크'는 모든 관객이 함께 즐기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신규 앨범을 발표한 팀들이 라인업에 다수 포진된 만큼 보다 새롭고 다채로운 무대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 34개팀이 출동하는 '시티브레이크'에는 오지 오스본과 마룬 파이브가 양일 헤드라이너로 나선다. 여기에 싸이와 후바스탱크가 힘을 보태며, MC 루페피아스코, 넬, 옐로 몬스터즈 등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셋째 주는 뜨거운 서울이 예상된다. 14일에는 '슈퍼소닉'이, 15일·16일에는 '나우 페스티벌'이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무대를 꾸민다.

퀸과 아담 램버트의 합동공연으로 화제가 된 '슈퍼소닉'에는 피닉스, 어 그레이트 빅 월드, The 1975 등 핫한 밴드들이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국내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와 게이트 플라워즈 등도 참여한다. 한국 인디록의 1세대 밴드이자 한국 록씬의 전설 노브레인과 크라잉넛도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펼친다.

빅뱅, 2NE1, 싸이, 에픽하이, 악동뮤지션 등 YG 소속 가수와 레이디 가가가 양일 헤드라이너로 나서는 '나우 페스티벌'에는 글렌체크, DJ 시드니 샘슨, 갤럭시 익스프레스, 크레용팝, 카제트 등이 출연을 결정해 록페스티벌 마니아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1일 인천 송도서 '펜타포트' 포문
국내 '3대 록페' 관록… 탄탄한 구성

8일 '고양 락&페스티벌' 한국 록씬 폭발
'마왕' 신해철, 6년 만에 귀환 주목

9·10일 '시티브레이크' 상암벌 달궈
마룬파이브 등 신곡 들고 무대 노크

14일 '슈퍼소닉' 15·16일 '나우 페스티벌'
퀸부터 YG패밀리까지 '특급 콜라보'





'퀸'의 아담 램버트(왼쪽)와 오지 오스본.

슈퍼소닉 '퀸'… 시티브레이크엔 '오지 오스본'

록★ 누가 나오나

펜타포트, 헤드라이너로 이승환 출격

영화를 선택할 때 주연배우를 보고 결정하듯, 록페스티벌도 마찬가지다. 국내 다양한 록페스티벌 중 어떤 록페스티벌에 참여해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록페스티벌 라인업을 살펴보자.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헤드라이너가 록페스티벌의 선택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이다.

단연, 가장 화제가 된 올해의 대형 헤드라이너는 14일 '슈퍼소닉 2014' 무대에 오를 퀸(Queen)이다. 영국이 자랑하는 록의 전설 퀸은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 슈퍼스타 아담 램버트(Adam Lambert)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한국 팬을 만날 예정이다.

퀸의 드러머 로저 테일러는 지난 4월 "80년대 초에 프로모션 투어로 서울을 방문했는데 독특한 건축물과 문화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마침내 한국에서 아담 램버트와 퀸 공연을 하게 돼 정말 기쁘고 흥분된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펜타포트'의 헤드라이너로는 이승환(1일)과 카사비안(2일), 트래비스(3일)가 등장한다. 2008년부터 네 차례 이상 한국을 찾은 브릿팝 밴드 트래비스의 공연을 찾는다면 종이비행기를 접어 준비해가는 게 좋다. 2009년 공연 당시 팬들이 트래비스의 무대를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린 이후 트래비스가 '클로저(Close)'를 부를 때마다 같은 이벤트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시티브레이크'에는 오지 오스본과 마룬파이브가 헤드라이너로 이름을 올렸다. 영국 출신의 오지 오스본은 지난 40여년간 약 1억장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고, 강력한 카리스마와 원초적인 보컬을 선보이며 헤비메탈의 상징으로 군림해왔다. '고양 락&페스티벌'에는 '리부트 마이셀프 파트원(Reboot myself Part.1)'으로 6년 만에 컴백한 신해철이 헤드라이너로 등장하며, '나우 페스티벌'에는 YG패밀리와 레이디 가가가 양일 헤드라이너로 나선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44년 역사 英 '글래스톤베리' 13만 인파 몰려

세계 유명 록페 뭐가 있나

日 후지·서머소닉… 美선 코첼라 대세



영국 록페스티벌인 '글래스톤베리' 현장.

국내에만 록페스티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세계 도시 곳곳의 여름은 뜨거운 음악 소리로 가득찬다.

그 선두주자로는 영국 최대의 음악축제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을 들 수 있다. 글래스톤베리는 1970년 개인이 자신의 농장을 하루 동안 개방해 음악 축제를 연 것이 시초가 돼 올해에 이르기까지 44년의 역사를 쌓아올렸다. 글래스톤베리의 특징은 음악의 다양성이다. 미국의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젊은이들의 이상과 저항정신을 상징했다면, 글래스톤베리는 록, 힙합, 일렉트로닉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라인업을 구성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영국 남서부 작은 도시 글래스톤베리에서 진행된 글래스톤베리 축제에는 13만5000여명의 사람이 몰렸다. 특히, 올해에는 잠비나이, 술탄오브더디스코, 최고은 등 국내 뮤지션이 초대돼 눈길을 끌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개최되는 후지 록페스티벌과 서머소닉 등 유명 록페스티벌은 특히 국내 록페스티벌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1997년 시작돼 매년 약 15만명의 관객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후지 록페스티벌은 국내 대형 록페스티벌의 모태 격이다. 후지 록페스티벌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펜타포트와 제휴를 맺었고, 2009년부터는 지산 밸리와 제휴 관계를 맺어왔다. 서머소닉은 슈퍼소닉과 라인업을 공유한다.

우드스탁 록페스티벌을 시작해 룰라팔루자를 지나 현재 미국 록페스티벌의 대세는 코첼라 페스티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인디오에서 매년 4월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는 올해 아웃캐스트, 뮤즈, 아케이드 파이어 등이 참여해 굵직한 라인업을 선보였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관객과 교감, 존재이유 느껴 | 1년에 단한번… 짜릿한 일탈

까수 나는 이래서 참가한다 괜깩

축구에 비유하자면 월드컵
다른 공연과 에너지가 달라

땡볕 아래 보는 공연마저도
지루한 일상에 신선한 자극

록페스티벌의 시즌이 다가왔다.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샤우팅과 신나는 리듬으로 흥을 돋우는 가수들 역시 설레는 마음으로 록페스티벌 준비에 여념이 없다. 가수들은 어떤 이유로 록페스티벌에 참여할까. 록페스티벌 참여 가수로부터 소감과 각오를 들어봤다.

'인천 펜타포트락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장미여관(8월2일 공연·사진)은 "부르는데 안 갈 수가 있나요? 비바람이 불어도 불러만 주신다면 어디든 가겠습니다"며 "록페스티벌 현장에서 관객들이 '오빠'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고 소망했다.

휴키이스(Hugh Keice, 8월1일 공연)도 '인천 펜타포트락페스티벌'에 함께 한다. 그는 "브라질 월드컵이 전 세계 축구선수들과 팬들이 한마음이 돼 즐기는 축제인 것처럼 뮤지션에게는 록페스티벌이 바로 월드컵 같은 무대"라며 "전 세계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객들과 소통하고 춤을 추며 각박한 일상에서 잠시나마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뮤지션에게 이보다 더 큰 희열을 주는 무대가 또 어디 있겠느냐"며 록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노브레인은 오는 8월 15일 열리는 '슈퍼소닉 2014' 무대를 앞두고 있다. 그들은 "단팥빵에 단팥이 빠질 수 없듯이 록페스티벌에 노브레인이 안 들어갈 수 있을까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뜨거운 여름이 다가왔는데, 페스티벌 현장에서 모든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에너지 넘치는 각오를 내비쳤다.

오는 9월 20~21일 양일간 열리는 '2014 렛츠락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정준영은 "이번이 록페스티벌 2번째 무대다. 기대된다"며 "늘 반갑고 하고 싶은 일이다. 많은 관객분과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기대감에 찬 모습을 보였다.

반면 앞서 록페스티벌에서 록사운드로 열정적 무대를 마친 가수들이 있다. 록페스티벌의 대표 가수인 장기하와 얼굴들은 지난 5월 열린 '사운드홀릭 페스티벌 2014 EXIT'와 함께 했다. 장기하와 얼굴들은 "록페스티벌은 다른 공연들과 에너지가 다르다"며 "무대에 서서 우리의 노래를 따라 하며 한몸이 돼 움직이는 관중들을 보고 있으면 록밴드는 결국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정 기자 mj_kim@

"이날을 위해 1년을 기다렸다." 록페스티벌을 사랑하는 대중을 위한 축제가 펼쳐진다. 직업불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 대형 록페스티벌 현장을 찾는 이들이 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잠깐의 일탈을 꿈꾸고, 음악과 춤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날려 버린다. 록페스티벌 관객들은 어떤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는 것일까. 록페스티벌을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공연장을 찾는 이유를 들어봤다.

해군장교 김가영(26)씨는 "록페스티벌에 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매년 록페스티벌을 찾는다. 나도 그중 하나"라며 "에어컨도 없는 땡볕 아래 혹은 비가 쏟아질 때 진흙을 밟으면서 왜 그런 공연을 보나 싶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지루한 일상에 새로운 느낌을 준다"고 공연장을 찾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평소 잘하지도 못하는 과감한 화장도 할 수 있고 묵혀 놓았던 화려한 옷과 소품을 꺼내 입을 수 있는 날이라서 좋다. 물론 록을 좋아하기 때문에 간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이정욱(23)씨는 "우리나라 특성상 가요 프로그램에서는 록을 볼 수 없지만, 록페스티벌에서는 열정적인 밴드의 무대를 즐길 수 있다"며 "평소 동영상으로 봐 왔던 해외 록밴드도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다. 아티스트들은 자기 공연이 끝나면 맥주를 들고 관객과 하나 돼 같이 즐긴다. 그 점이 정말 좋다"고 전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직장인 임중섭(35)씨는 "귀로만 듣는 음악보다 눈으로 직접 퍼포먼스를 보면서 평소와 다른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록페스티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묘미인 것 같다"며 "좋은 사운드와 퍼포먼스를 BGM(Background Music) 삼아 배고플 땐 돗자리 위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는 것도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매년 록페스티벌을 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는 직장인 김수진(31)씨는 "스트레스를 한 번에 푸는 기회가 된다. 강렬한 음악을 들으며 많은 사람과 뛰고 소리 지르며 땀을 흘리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색다른 데이트 장소로도 좋다. 공연장 뒤쪽에 돗자리를 펴놓고 록페스티벌 분위기를 즐기기도 한다"고 공연장을 찾는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기자 mj_kim@



지난해 열린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 관객들이 돗자리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차게 즐기는 방법

티켓 할인은 기본… VIP는 전용 화장실도

이통사 멤버십 등 혜택…무료음료·기념품도

매년 열리는 음악축제 록페스티벌, 어김없이 올해도 각양각색 록페스티벌이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며 관객맞이에 한창이다. 록페스티벌을 좀더 신나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록페스티벌의 티켓 가격과 페스티벌 속 다양한 혜택을 찾아봤다.

'인천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은 현재 정가보다 5% 저렴한 프렌즈티켓을 판매 중이다. 1일권은 10만4500원, 2일권은 14만6300원, 3일권은 17만7650원이다. 판매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공연일에도 티켓은 판매된다. 단 정가로 구매해야 한다. VIP 티켓의 경우 1일권은 15만원, 2일권은 20만원, 3일권은 25만원이다. VIP 혜택으로는 전용 라운지와 물품보관소 무료 제공, 핸드폰 무료 충전, 전용 화장실, BAR 맥주 1000원 할인 등이 제공된다.

'슈퍼소닉 2014'는 스탠딩 존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제너럴(General)티켓(16만5000원)과 무대 앞 스페셜 스탠딩 존 입장과 슈퍼스테이지 1~2층 지정 좌석 및 전용 음료바 이용 등 특별 혜택이 제공되는 스페셜 A/B 티켓(24만원/20만원)으로 나뉘어 있다. SK텔레콤 T멤버십 고객은 오는 20일 24시까지 제너럴 티켓에 한해 40% 할인된 9만9000원(1만1000장 한정)에 예매할 수 있다.

'현대카드 시티브레이크 2014'는 2일권(25만5000원)과 1일권(16만5000원)을 현재 판매 중이다. 전용 라운지와 화장실, 냉방시설 등이 갖춰진 슈퍼 플러스 패키지(30만원)도 판매 중이다. 현대카드 결제 시 20% 할인 혜택을 준다. 현대카드 앱카드 결제 시에는 할인 10%가 추가 제공된다.

'AIA 리얼 라이프: 나우 페스티벌'은 1일권(12만6000원)과 2일권(18만5000원)이 판매 중이다. 1일권 플래티엄 패스의 경우 전용 라운지와 전용바 이용 및 무료 음료권 2매, 페스티벌 공식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단, 16일자 1일권과 2일권은 만 18세 이상 구매 가능하다. 김민정 기자 mj_kim@



‘직렬 5기통’ 바람 타고 종합 연예기획사로 “레디~고”

연예산업 파워를 찾아서

㉞ 크롬엔터테인먼트



크롬엔터테인먼트 녹음실. 장세영 기자 photothink@

2011년 설립… 걸그룹 크레용팝 데뷔
연매출 1000만원서 100배 ↑ ‘대박’
남성 듀오 짠짠·걸그룹 단발머리도
작년 6월 법인 전환… 日지사 추진
공연 기획·소니뮤직 레이블 계약 등
사업다각화·내실 다지기 전략 병행

조금은 작다 싶다. 하지만 설립된 지 2년이 갓 지난 신생 기획사임을 감안하면 그렇게 작은 규모도 아니다. 서울 강남 논현동의 어느 한 골목, 하얀 글씨로 ‘크롬엔터테인먼트(Chrome Entertainment·이하 크롬)’라고 새겨진 파란 띠의 간판을 화살표 삼아 내려가면 크롬의 모든 것이 담긴 장소가 펼쳐진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녹음실과 안무 연습실, 사무실, 접견실, 식당까지 필요한 구색은 다 갖췄다. 2년 전 크롬을 설립했던 당시와 비교해 달라진 게 별로 없다. 크롬은 아웃소싱을 줄여 중복 지출을 피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 시작했다.

3년 전 같은 장소에는 파란색의 동일한 폰트로 ‘크롬스튜디오(Chrome Studio)’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크롬의 수장 황현창 대표는 크롬스튜디오를 운영해 오다 2012년 6월 크롬을 설립했다. 홀로 크롬을 올려 세웠기 때문에 자본금이라고 명명할 정도의 돈을 쥐고 시작하지 않았다. 기존 사업체인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고가의 장비를 처분하면서 손에 쥔 돈과 함께 필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투자했다.

호기롭게 시작한 크롬은 설립과 함께 걸그룹 크레용팝을 야심차게 내놨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대중은 ‘빙빙’과 ‘새러데이 나잇(Saturday Night)’ 등을 부르는 크레용팝을 그저 그런 걸그룹 중 하나로 치부했다.

그래서 누구나 상상은 하지만 차마 시도하지 못하는 걸 도전했다. 일종의 오기였다. 걸그룹 크레용팝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커다란 이름표를 붙였다. 지난해 6월 ‘빠빠빠’를 발표한 크레용팝은 직렬 5기통 춤을 추며 전국에 ‘빠빠빠’ 바람을 일으켰다.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수많은 패러디 영상을 탄생시키며 소위 말해 대박을 쳤다.

‘빠빠빠’의 성공 이전 크롬의 연매출은 1000만원을 겨우 넘는 정도였다. ‘빠빠빠’의 성공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가 싶더니 이내 100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쌀이 없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돈을 손에 거머쥔 것도 아니다. 황 대표는 “이제 당기순이익이 나기는 하지만, 가요 기획사 경우 음반 제작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해야 한다”면서 “그저 다음 앨범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에 감사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위기도 있었다. 일베 논란과 함께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광고와 행사가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를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결속력과 단합을 확인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그렇게 몇 차례 어려움을 겪으며 단단해진 크롬은 규모를 계속 키웠다.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상장을 목표로 지난해 6월 법인으로 전환했다. 크롬 수익모델의 대부분이 크레용팝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다른 아티스트도 꾸준히 기획 중이다. 지난 1월에는 남자아이돌 가물치(K-MUCH)를 내놨고, 지난달에는 남성 듀오 짠짠과 걸그룹 단발머리를 대중에 선보였다. 연기자도 키우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KBS 2TV ‘하이스쿨: 러브온’에 단역으로 출연한다.

부대사업도 준비 중이다. 아카데미 쪽과 콘서트 공연 기획과 함께 해외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크롬은 일본 도쿄 지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크레용팝이 데뷔 때부터 일본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일본 시장을 먼저 공략할 생각이다.

크롬은 한류가 진행 중인 나라와 더불어 이제 막 한류 붐이 시작되는 그리스나 튀니지, 요르단 등의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최근 크레용팝은 중동 요르단의 팬들과 화상채팅으로 팬미팅을 개최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크레용팝을 접한 팬들의 끊임없는 요청에 응한 것으로, 크롬은 앞으로 미개척 해외 시장에 진출해 공연 기획과 팬미팅 등을 추진, 수익 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소니뮤직과 최초로 레이블 계약을 했다. 이번 계약으로 크롬은 타사에 소속된 아티스트나 자유계약(FA) 아티스트의 앨범 기획·제작 및 음반·음원 유통을 할 수 있게 됐다. 크롬의 사업 다각화 전략 중 하나다.

앞만 보며 달려온 크롬은 이제 한숨을 돌리며 일보 후퇴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시류에 휩쓸려 상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초창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내실을 다질 때라고 판단했다. 음반 제작과 자사 아티스트의 입지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아티스트의 인지도가 상승하면 회사의 규모는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인 터 뷰 황현창 크롬엔테인먼트 대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 B급 정서와 일맥상통”

있어보이려고 따라할 거 있나요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 보여줄 것

“위 빌드 아워 퓨처(We build our future).” 크롬엔터테인먼트(이하 크롬)의 슬로건이다. 황현창(36) 크롬 대표는 크롬스튜디오 사업을 영위할 때도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는 “이 슬로건에서 중요한 건 ‘위(We)’, 즉 ‘우리’다”며 크롬의 소속 직원과 아티스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크롬에서 만난 황 대표는 흰색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 마른 체구에 훤칠한 젊은 남자는 격의가 없었다.

“소속 아티스트가 하고 싶은 걸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한다. 팀명, 의상 콘셉트, 안무, 노래 장르 등 소속 아티스트에게 끊임없이 묻는다. 그렇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앨범 작업을 진행한다.”

녹슬지 않고 반짝반짝 반사되는 크롬이라는 금속의 성질에 매료된 황 대표는 스튜디오에 이어 자신이 새롭게 설립한 엔터사에도 크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래도록 반짝반짝 빛을 내는 아티스트를 기획하고자 하는 바람에서였다.

2년 전 크롬을 설립하기 이전 황 대표는 크롬스튜디오의 대표로 활동했다. 클래식에 심취해 대중음악과는 담을 쌓고 살아왔던 그는 걸그룹 티아라의 ‘롤리폴리’를 우연히 들은 후 대중음악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하루에 ‘롤리폴리’ 한 곡만 수십 번 들었다. 그때 ‘이게 뭐라고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콘셉트, 음악, 의상, 무대 모든 것에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겼다.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걸 접목해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크롬의 설립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쉬운 음악을 추구한다. 누구든 노래를 들었을 때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이 최고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다. “대중적인, 편안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티스트를 키우고 싶다.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되는, 그런 어렵지 않은 아티스트 말이다.”

크롬이 B급 정서를 풍기는 것도 일맥상통한다. 크롬이 B급으로 정의되는 것에 부담은 없다. 그는 “우리가 B급이라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B급은 포지셔닝과 트렌드 중 하나일 뿐 순위나 서열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사를 꿈꾼다. 소속 아티스트와도 격의 없이 지내고, 쉬운 음악을 추구하며, B급 정서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다.

“과장되거나 포장되지 않은, 꾸밈없는 회사가 되면 좋겠어요. 굳이 있어 보이려고 A급을 무리하게 흉내 내고 따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생회사다 보니 어떤 엔터사도 흉내 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니까요.” 홍샛별 기자 byul0104@



the Vitamin House

Mobile DAUM 비타민하우스

BerryD -tox 로 피부에 생기를 돌려주자!



Step1. 맑은 눈 – 블루베리

비타민A, 비타민C, 눈을 생각한 원료
마리골드추출물, 결명자추출물분말

Step2. 맑은 피부 – 아사이베리

비타민C, 비타민E, 피부건강을 생각한 원료
콜라겐(생선), 히알루론산

Step3. 맑은 혈관 – 아로니아

비타민C, 비타민E, 혈관을 위한 원료 사용
레몬밤추출분말, 포도씨추출물

Must Have

베리디톡 3종

지금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에서 만나보세요!

제품문의 **1588-8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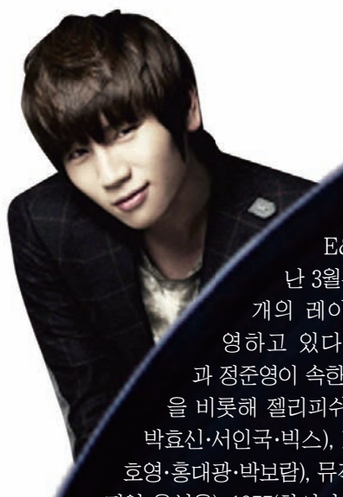
대형엔터·중소기획사 '듀엣'…음악성·수익성 '하모니'

음반제작·가수육성, 투자·마케팅 등 분업 통한 '협업'
CJ E&M, 젤리피쉬·MMO·뮤직웍스 등 총 7개 운영
스타쉽엔터, 작년 12월 로엔엔터 합류 이후 '실적상승'
"질 높은 콘텐츠 대기업에 흡수·장악" 우려 목소리도

가요계 부는 '레이블' 바람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지형이 레이블(label)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레이블은 본래 레코드판의 중앙에 붙어 있는 레이블 실로 상표, 아티스트 이름, 곡목, 작사·작곡자 이름, 레코드 번호 등이 기록돼 있는 것인데 의미가 바뀌어 제작 브랜드명을 가리키는 용어가 됐다.

최근 레이블은 아티스트와 음반제작을 위한 전문화된 기업 형태로 대형 엔터테인먼트가 성장가능성이 있는 음반사의 일정 지분을 사들이면서 투자를 통해 회사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레이블 체제 아래 소속사는 기존 고유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협업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 엔터테인먼트가 레이블 체제를 가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레이블이 가져다 주는 효과와 이점에 대해 알아봤다.



CJ E&M
CJ 뮤직, 젤리피쉬, MMO, 뮤직웍스, 1877, 빅터, EB 등

로엔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 스타쉽엑스, 로엔트리, 콜라보따리 등

SM C&C 울림, 발전소 등

미스틱89 APOP 엔터 등

CJ E&M은 지난 3월부터 총 7개의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다. 로이킴과 정준영이 속한 CJ 뮤직을 비롯해 젤리피쉬(성시경·박효신·서인국·빅스), MMO(손호영·홍대광·박보람), 뮤직웍스(백지영·유성은), 1877(하이니·와블), 일본의 메이저 음악제작사인 빅터(Victor Entertainment) 등이다.

이 밖에 가수 서인영이 최근 기존의 '서인영 컴퍼니'를 'EB(Eternal Blossom)'로 회사명을 변경해 CJ E&M 레이블로 합류했다. 서인영은 "음악 제작부터 활동, 각종 홍보마케팅 등 모든 제반 사항을 챙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 제작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레이블로 합류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국내 대표 음반 및 음원 유통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도 레이블 체제를 갖고 있다. 로엔은 지난해 12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지분 70%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멀티 레이블 체제로 전환했다. 이 밖에도 스타쉽엑스와 로엔트리, 콜라보따리 등이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

SM C&C는 지난해 '울림(WOOLLIM)'을 첫 레이블로 합병한 뒤 인디 레이블인 '발전소(BALJUNSO)'도 레이블화했다. 지난 2일에는 윤종신이 이끄는 미스틱89가 APOP 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면서 멀티 레이블 체제 도입을 선언했다.

이처럼 회사 간에 레이블 체제를 만들어 가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협업을 통한 윈윈(WIN-WIN) 전략이다. 중소 기획사가 음반제작에서 활동, 해외진출, 홍보마케팅 등 제반 사항을 완벽하게 갖추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에 제작사나 기획사는 음반을 만들고 가수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대형 엔터테인먼트가 투자와 마케팅, 홍보에 집중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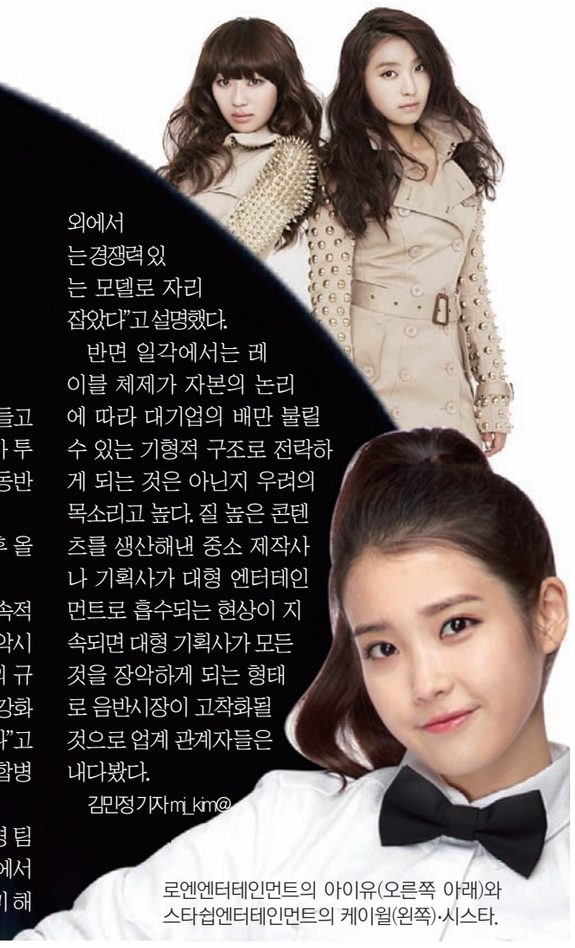
그 결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경우 합병 이후 올해 1분기 매출 약 24억원을 기록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서현주 이사는 "K팝의 지속적 성장으로 국내 음악시장을 넘어 세계 글로벌 음악시장을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업의 규모와 조직 구성에 있어 경쟁력 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본다"고 로엔엔터테인먼트의 합병 이유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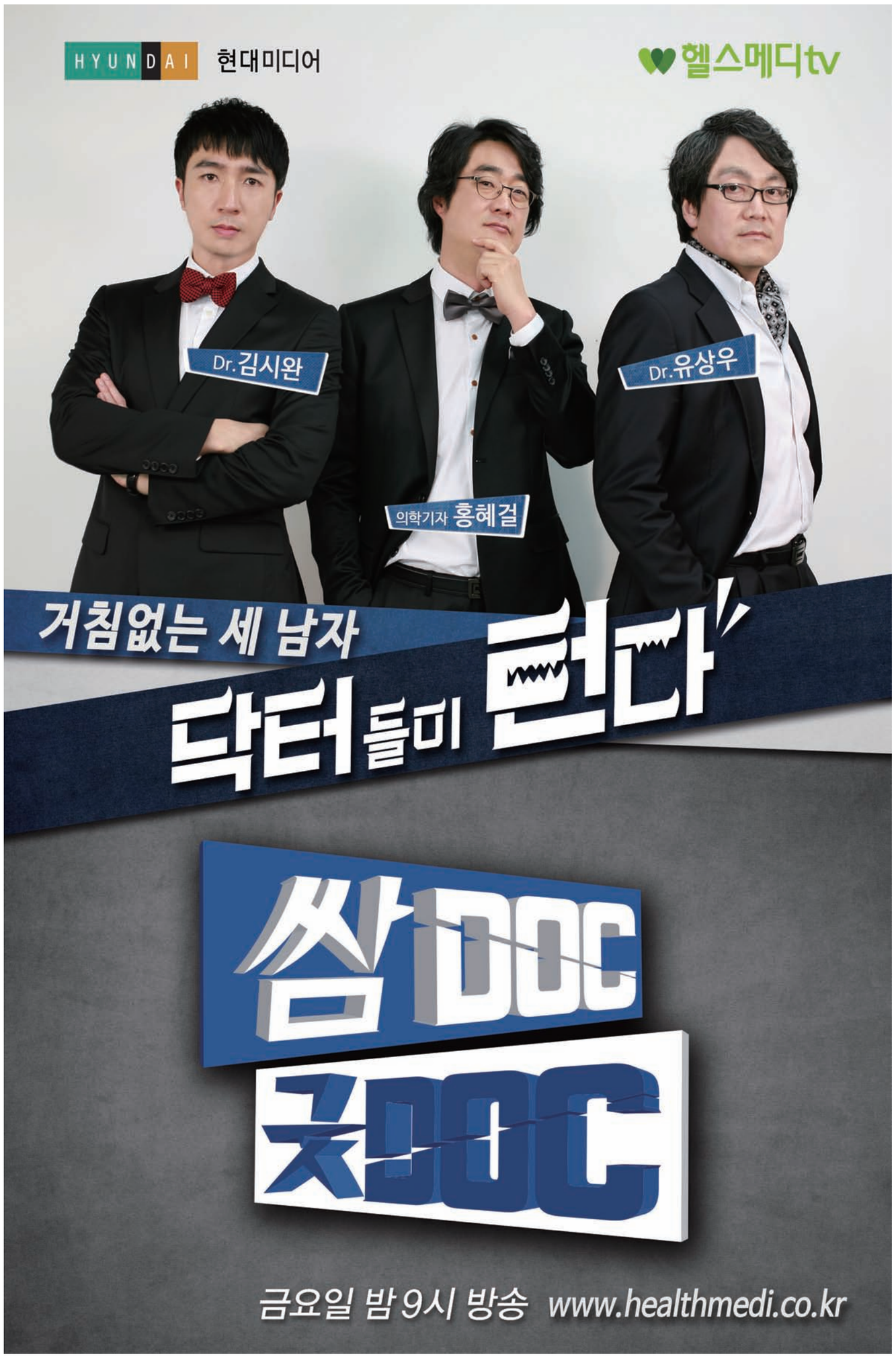
SM C&C 문보영 팀장은 "음악산업에서 레이블화는 이미 해외에서는 경쟁력 있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레이블 체제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 대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는 기형적 구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고 높다.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해낸 중소 제작사나 기획사가 대형 엔터테인먼트로 흡수되는 현상이 지속되면 대형 기획사가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는 형태로 음반시장이 고착화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김민정 기자 mj_kim@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아이유(오른쪽 아래)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케이윌(왼쪽)·시스타.



스타 스타를 말하다 최지우가 말하는 최지우

"'천국의 계단'이 첫사랑이라면 '유혹'은 농익은 성인들의 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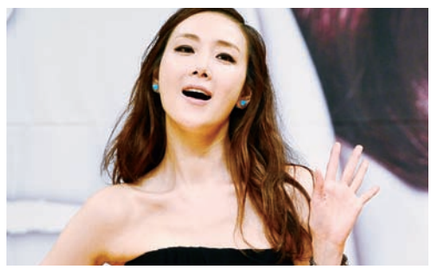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최지우〈사진〉입니다. 지난해 '수상한 가정부'로 인사드린 후 이번에 SBS '유혹'이란 드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유혹'은 성인들의 멜로 드라마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한 남자가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제안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14일 첫 방송 말미 제가 연기한 유세영이 차석훈(권상우)에게 사흘에 10억원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유혹'이 점차 시청자들을 매혹시킬 것이란 기대가 듭니다.

극중 유세영은 젊은 나이에 후계자 수업을 받아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고, 일과 사랑 중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이에요. 여자로서 사랑과 결혼에는 관심이 없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다가오면서 사랑을 알아가는 여인이죠.

무엇보다 '수상한 가정부'에서는 감정의 교류가 없었잖아요. 상대방 눈을 쳐다보고 사람에 따라 리액션을 받는 감정 표현의 연기를 해야 하는데 그 것을 못하는 게 답답했어요. 멜로는 서로 눈빛을 보고 거기에 대해 연기하고 감정을 이끌어가서 좋아요. 멜로가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멜로에서는 상대역이 중요하죠. 이번에 권상우와 '천국의 계단' 이후 11년 만에 재회합니다. (권상우와) 오랜만의 만남이었지만 참 편했어요. 스케줄상 연기하기 전에 워밍업을 못했는데도 잘 맞아서 좋았어요. 시간이 10년 넘게 흘렀는데 막상 봤을 때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계속 호흡을 맞추고 계속 본 것처럼 편했어요. '천국의 계단'이 풋풋한 첫사랑의 예쁜 멜로 드라마였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성숙된 남자와 여자가 만난 어른들의 멜로잖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상대역 권상우 11년만에 재회
워밍업 못했지만 호흡 잘맞아
"멜로 연기 정말 하고 싶었어요"

최두선 기자 sun@

오디션 프로그램에 밀려 설곳없는 '가요제'

MBC대학가요제 36년만에 폐지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도 재정난에
"가수 등용문 다양…입지 줄어들어"

명망 높았던 가요제들이 하나 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MBC 대학가요제는 36년 만에 폐지됐고,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는 재정 문제로 존폐 위기에 처하며 생존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1997년 첫선을 보인 MBC 대학가요제는 많은 스타 가수의 등용문이었다. 샌드페블즈를 시작으로 배철수, 심수봉, 노사연, 유열, 신해철, 015B, 전람회(김동률), 이한철 등이 MBC 대학가요제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최근 MBC는 MBC 대학가요제를 최종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를 배출해낸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도 존폐 위기에 놓였다.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는 조규찬, 유희열, 스윗소로우, 방시혁 등을 배출해냈지만 매회 재정 문제로 위기를 겪어 왔다.

1989년 1회를 시작으로 2005년 재정 문제로 중단되는 위기에 봉착했지만, 이듬해 싸이월드의 후원으로 17회가 재개됐다. 지난해 24회에는 협찬사 부재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역대 수상자들이 행사 진행부터 제작, 홍보까지 도맡아야 했다.

1990년대 대형 연예기획사 출신 아이돌 그룹이 인기를 끌면서 가요제의 영향력도 급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요제가 사라졌다. 김윤하 음악평론가는 "최근 SBS 'K팝스타', 엠넷 '슈퍼스타K' 등 오디션 프로그램이 범람하면서 스타가수 등용문인 기존 가요제의 입지가 점점 줄었다"고 설명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별 헤는 밤… 더위와 헤어졌다



휴가시즌 캠핑장 어디가 좋나

강원 횡성 자연휴양림
다양한 콘셉트 객실·산책로… 편의시설 갖춰

전남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6개 코스 779ha규모 편백나무 둘레길 매력

여의도·뚝섬·잠실·잠원
1박 2만원… 캠핑 초보자위한 장비 대여도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휴가지 선택으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많을 시기다. 번잡한 도시와 북적이는 사람들,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캠핑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급변하는 휴가문화 속에서도 캠핑이 새 트렌드로 자리잡은 이유이기도 하다.

강원 횡성 자연휴양림 오토 캠핑장은 수도권에서 멀지 않아 인기다. 특히 최대 3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마련돼 있어 가족·단체 캠핑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오토 캠핑장과 함께 운영하는 객실도 별도로 이용 가능해 캠퍼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다양한 콘셉트의 23개 객실과 산책로, 카페 등 편의시설도 갖춰 캠핑족들의 만족도가 높다.

경남 거제시 동부면에는 거제 자연휴양림이 있다. 숲속의 집은 5인용 중산막과 10인용 동백·해송으로 구성된다. 가격은 5인용 1박 7만원, 10인용 14만원(성수기 기준)이다. 이용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이며, 오후 8시까지는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그밖에도 제주절물휴양림, 백야자연휴양림, 성주산휴양림, 도사곡휴양림,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칼봉산자연휴양림, 거제자연휴양림 등 전국 각지의 휴양림 예약이 시작되면서 캠핑족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남 장성군의 홍길동 테마파크도 여름철 가족단위 캠핑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23만㎡ 규모의 테마파크 내에 자리한 야영장은 데크와 취사장, 샤워장, 공연장,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토 캠핑장은 별도 장비 없이도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인근의 풋살 경기장과 홍길동 생가, 산채 등 각종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고, 주변 산책로도 조성돼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으로는 제격이다. 특히 779ha 규모의 편백나무 숲을 감아 도는 축령산 둘레길은 특별한 매력을 발산한다. 하루 코스 19㎞, 반나절 코스 11㎞ 등 총 6개 코스로 나뉘는 둘레 길은 은은한 편백나무 향을 맡으며 삼림욕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충북 단양군도 휴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울창한 숲과 깨끗한 물이 어우러진 계곡이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이곳 계곡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허파'라 불리는 소백산 천연림에서 발원, 거울처럼 맑은데다 한여름에도 손이 시릴 만큼 차갑다. 기암괴석을 휘감아 돌며 아담한 폭포를 만들어 내는 계곡은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이들 계곡은 야영장과 음수대,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여름 휴가철이면 가족단위 캠핑족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캠핑이라고 해서 반드시 먼 곳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집에서 가까운 한강에서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많다. 여의도와 뚝섬, 잠실, 잠원 등 4개소다. 이용료는 2만원으로 미리 설치된 텐트를 이용해 쉽고 다양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캠핑 장비나 관련 지식이 없는 캠핑 초보자와 가족단위 캠핑족들도 편안하게 이용 가능해 인기다.

테이블, 의자, 랜턴 등의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샤워장, 화장실, 음수대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모닥불 앞에서 고구마를 구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모닥불존과 육류를 가져오면 유료로 구워주는 바비큐존 등도 운영된다.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위치한 노을캠핑장도 인기다. 15일 개장한 이 캠핑장은 최대 2박3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1박2일 기준 1만5000원 선이다.

오상민 기자 golf5@

사진=제주신라호텔 글램핑

보령 '머드' 춘천 '호수'… 물 축제, 물로 보지마!

여름휴가에 물이 빠질 수 없다. 무더위와 갈증을 한방에 날려줄 각종 물 축제가 여행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26일부터 나흘간 충남 금산군 금강놀이마당 일원에서는 금강여울축제가 열린다. 지난해부터 물체험 축제로 변신에 성공한 금강여울축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름축제로 인기다. 금강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한 뗏목타기와 강변슬라이딩, 물스포츠게임, 금강족욕체험 등 각종 물 체험 행사로 구성됐다. 경운기를 타고 수박·참외·옥수수·감자 등 농작물을 캐러가는 농촌체험과 다슬기잡기·맨손고기잡기 등 강변체험도 마련돼 아이들의 현장 학습장으로도 안성맞춤이다.

밤에는 금산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농바우끄시기, 물폐기농요 등 전통민속공연이 펼쳐져 한여름 밤의 감동을 선사한다. 축제장 인근 수통리·용화리에는 오토 캠핑장도 조성돼 있다.

18일부터 27일까지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보령머드축제는 거리 퍼레이드가 신설돼 한층 새로워졌다.

1998년 7월에 처음 열린 이 축제는 머드체험관, 머드 셀프 마사지존, 머드풀 슬라이드 등 머드를 온몸으로 느끼며 즐길 수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관심사다. 부대 행사는 축제 캐릭터상품과 머드 화장품을 전시 판매하며 퍼레이드 및 공군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연계 행사가 개최된다. 거리퍼레이드는 19일 오후 2시부터 보령 문화의전당에서 출발한다. 공군군악의장대와 보령머드축제를 상징하는 콘셉트 카를 선두로 버블아트, DJ쇼 차량, 10명의 삐에로, 마칭밴드, 마술사 퍼레이드팀, 변검공연팀과 함께 16개 읍면동 풍물단이 참여해 흥을 돋운다.

27일까지 열리는 춘천호수별빛축제는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강원 춘천 일대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LED 분수쇼와 폭포, 눈꽃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노천카페의 상설공연과 전국 통키타 페스티벌, 별빛시민노래자랑, 물레길 연계행사 등이 마련돼 인기를 끌고 있다.

물의나라 화천 쪽배축제는 26일 개막해 8월 10일까지 강원 화천의 북한강 붕어섬과 생활체육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강변물놀이장, 카약, 하늘가르기 등 3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영월 동강축제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래프팅의 메카 동강에서 펼쳐진다. 수상체험은 물론 맨손 송어잡기, 삼굿시연, 행글라이딩 체험, 카누체험, 동강 뗏목타기 체험, 동강랠리 체험 등 다이내믹한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오상민 기자 golf5@



18일부터 27일까지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는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 거리퍼레이드가 신설돼 한층 더 새로워진 이번 축제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뉴시스

여행 단신

◇참좋은여행, 내몽골 가족여행상품 출시 = 내몽골 지역을 6일간 여행하는 일정으로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6차례 출발한다.

만주리부터 시작해 어얼구나, 맘모스공원, 후룬호 등을 관광하며, 러시아 침공에 대비한 일본군의 최대 요새 침화일군을 둘러본 후 중국의 대표적 초원지역인 후룬베이얼을 여행한다.

내몽골 원주민들과 저녁을 함께하는 캠프파이어도 마련돼 있다. 숙박은 몽골의 민속가옥인 몽골포(게르)를 이용한다. 가격은 79만9000원으로 8월 19·26일은 10만원 할인된 69만9000원이다.

◇모두투어, 일본 규슈로 떠나는 여름휴가 = 2박3일 일정으로 운치 있는 도자기 마을로 유명한 아리타에서 독특한 도자기 가부키 인형극을 관람하고, 독일 드레스덴 궁전을 그대로 재현한 포세린 파크를 관광한다. 2일차에는 전일 자유일정으로 힐튼 호텔의 고급스러운 실내·외 수영장이나 이와부로 암반욕장 등 부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상품가격은 유류세포함 54만8600원부터로 30일부터 8월 2일, 일본 오봉 연휴기간인 8월 9일부터 16일, 추석연휴를 제외한 9월말까지 매일 출발한다.



두 달 앞… 올 가을 인천을 빛낼 ★은 누구?

아시안게임 9월19일~10월4일

박태환, 中 쑨양과 '명승부 예고'
손연재, 물오른 기량 메달 기대감
양학선, 신기술 공개에 이목 집중
이용대, 아시안게임 첫 금빛 도전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64일 앞으로 다가왔다. 28년 만에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아시안게임은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2년여 만에 스포츠 스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박태환(25·인천시청)과 쑨양(23·중국)의 맞대결은 절대 놓칠 수 없는 빅 매치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자유형 100m,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휩쓴 박태환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은메달 2개(200m·400m)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쑨양은 400m와 15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박태환보다 한 수 위 기량을 뽐냈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박태환과 쑨양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록만 놓고 보면 쑨양의 우세를 점칠 수 있지만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등에 업은 박태환이 탁월한 경기운영 능력에 특유의 막판 스퍼트가 더해진다면 승부는 예측불허다. 수영 경기는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동)메달을 획득한 손연재(20·연세대)의 상승세도 주목할 만하다. 2012년 런던올림픽 5위에 이어 지난해 월드컵대회에서도 5개 대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걸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는 10월 1일과 2일 남동체육관에서 열린다.

'도마의 신' 양학선(22·한국체대)은 경기 결과를 떠나 신기술 '양학선2'를 선보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미 세계 수준을 뛰어넘은 양학선은 이번 대회에서도 무난히 금메달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남동체육관에서 열린다.

도핑 테스트 문제로 홍역을 치른 이용대(26·삼성전기)는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을 획득한 이용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는 인연이 없었다. 2006년 도하대회와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는 남자복식 동메달에 만족했다. 경기는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계양체육관에서 열린다.

남자 축구는 23세 이하(U-23) 선수들이 출전한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28년 만의 정상을 노리고 있다. 특히 북한과의 맞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아시안게임 출전을 확정지을 경우 조추첨 결과에 따라 축구 남북 대결이 성사될 수도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아시안게임에서 세 차례(1970·1978·1986년) 정상에 올랐다. 경기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문학경기장 등에서 열린다.

오상민 기자 golf5@

오늘 광주 챔프언스필드
☆들의 밤
오후 7시 프로야구 올스타전

'별들의 잔치'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18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다. 이날 경기에서는 류중일 삼성 감독이 이끄는 이스턴리그(삼성·두산·롯데·SK)와 LG 양상문 감독이 이끄는 웨스턴리그(LG·넥센·NC·KIA·한화) 올스타팀이 격돌한다.

지난 7일 팬 투표를 통해 결정된 22명(리그별 11명)의 선수와 9일 감독 추천으로 뽑힌 24명(리그별 12명)의 선수까지 포함해 총 46명의 선수가 이번 올스타전 출전 멤버로 확정됐다.

NC 간판스타 나성범이 올해 팬 투표 최다 득표자로, 손아섭(롯데)은 3년 연속 팬 투표로 올스타전 무대를 밟게 됐다. 또 김현수(두산)는 감독 추천 등을 포함해 7년 연속 올스타전에 참가하고, 강민호(롯데)는 올해 감독 추천을 받아 8년 연속 올스타전 무대에 선다.

이재원(SK)과 박해민(삼성), 민병헌(두산), 모창민(NC) 등은 데뷔 후 첫 올스타전 출전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히메네스(롯데)와 칸투(두산), 피에(한화) 등 외국인 선수도 올해 올스타전 첫 출전권을 얻었다.

한편, 이날 올스타전에 앞서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41)의 은퇴식이 열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박찬호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박찬호가 마지막 시즌 몸담았던 한화 이글스와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미선 기자 msjun55@



골프, 직업의 세계

골프볼 디자이너

골프공에 과학을 입히다

코어 배합·표면 분할구조 설계
수학문제 풀어가듯 차근차근
신제품 개발 6개월~1년반 걸려

그린 위에 떨어진 골프볼이 핀을 향해 돌진한다.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강력한 백스핀이 걸린 볼은 거짓말처럼 핀 바로 옆에 멈춰 섰다. 일류선수들의 경기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일류선수들의 볼에는 원격조종장치도, 특수소재도 사용되지 않았다. 결코 특별한 볼이 아니다. 다만 일관된 성능을 제공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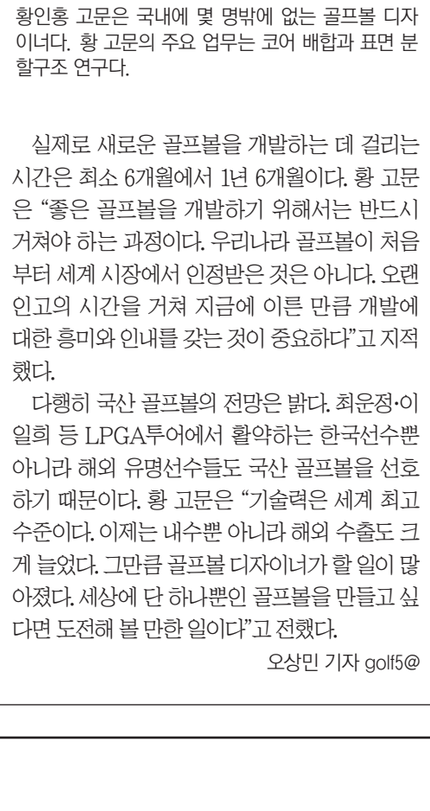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볼이 있다면 정확하게 멀리 날아가는 볼이다. 그러나 그런 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훌륭한 볼이 있다면 정직한 볼이다. 즉 나이·실력·구력에 상관없이 일관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볼이다. 모든 골프볼 브랜드가 꿈꾸는 볼이기도 하다.

이처럼 일관된 퍼포먼스의 골프볼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골프볼 디자이너라 부른다. 골프볼에 무슨 디자인이 필요하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골프볼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 구조나 모양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특화된 디자인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

골프볼 디자이너는 코어의 배합과 표면 분할구조를 연구·개발하는 직업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산 골프볼 제조업체 볼빅의 충북 음성공장에서 골프볼을 개발해 온 황인홍 고문은 국내에 몇 안 되는 골프공 디자인 전문가다. 황 고문의 손에 의해 개발된 골프볼은 일반 아마추어 골퍼는 물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활약하는 많은 프로골퍼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볼 디자이너가 되는 길은 그리 쉽지 않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해야 하고 골프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한다. 황 고문은 "삼각함수가 기본이 되는 업무다 보니 처음부터 질색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게다가 최소 10년은 해야 분할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주의점도 많다. 골프볼 디자인은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빨리 해결하려는 생각은 금물이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의 공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수학 문제를 풀어가듯 기초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연구·개발해야 좋은 골프볼을 완성할 수 있다.



황인홍 고문은 국내에 몇 명밖에 없는 골프볼 디자이너다. 황 고문의 주요 업무는 코어 배합과 표면 분할구조 연구다.

실제로 새로운 골프볼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다. 황 고문은 "좋은 골프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골프볼이 처음부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오랜 인고의 시간을 거쳐 지금에 이른 만큼 개발에 대한 흥미와 인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국산 골프볼의 전망은 밝다. 최운정·이일희 등 LPGA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선수뿐 아니라 해외 유명선수들도 국산 골프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황 고문은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제는 내수뿐 아니라 해외 수출도 크게 늘었다. 그만큼 골프볼 디자이너가 할 일이 많아졌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골프볼을 만들고 싶다면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고 전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2014년 여름, 당신은 어디 있나요?



①

소나기가 작은 북을 두드리듯
연잎을 밟고 지나가면

매미는 미루나무 가지에 앉아
연주를 한다.

호박 덩굴이 살금살금 기어가는
울타리 너머로
쏘옥 고개 내민 해바라기 얼굴이
햇볕에 누렇게 익은 아빠 얼굴 같다.

아까부터 장독대 곁 꽃밭에선
봉숭아씨가 토록토록 여문다.

–여름 한낮, 오순택–

한낮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매미의 우렁찬 울음소리에 여름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느낍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수영장도, 귓가를 간질이는 바람이 불어오는 나무 아래도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나기도 반갑습니다. 여름이니까요.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지지만 덥다, 덥다 투덜대기보다는 여름이다, 여름이다 주문을 외우세요. 여름이 지나가면 아쉬울 테니까요.

글·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②



③



⑤



④

“더위엔 이게 최고~”

① 서울의 한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등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고 있다.

②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물빛광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어린이들.

③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일대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화물칸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④ 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에서 여학생들이 물을 뿌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⑤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은 연인이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읽으며 오후 한때를 즐기고 있다.

공모주 시장 '외화내빈'

상반기 신규상장 21건 아시아 4번째…10건이 코넥스
공모주펀드 수익률 1.78%…개미들 시장회복 못느껴

올해 상반기 신규상장 건수가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국가 중 네 번째로 많은 것이지만, 신규상장의 절반이 전문투자자 중심의 코넥스 시장에서 발생했고 공모주 성과도 부진해 '외화내빈'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세계거래소연맹(WFE)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한국의 신규상장 건수는 모두 21건으로 아시아 국가 중 네번째로 많았다. 상반기 신규상장 건수는 중국과 홍콩이 각각 45건, 44건으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호주(3위·26건)와 한국(4위·21건)이 그 뒤를 이었고, 인도가 19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국내 IPO(기업공개) 시장의 회복 조짐에도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이같은 온기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상반기 신규상장 중 절반인 10건은 기관·벤처캐피털 등 전문투자자 중심의 코넥스 시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주로 투자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까지는 IPO 시장의 온기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 하반기 신규상장한 종목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공모주펀드 수익률은 저조하다는 점도 개인투자자가 공모주 시장의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기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10개 종목(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의 지난 15일 기준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64.27% 상승했다. 인터파크, 한국정보인증, 오이솔루션, 코스맥스, BGR리테일 등 올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 대부분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다.

공모주 주가가 고공행진하자 공모주펀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연초 이후 지난 15일까지 국내 공모주 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총 134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모주펀드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지난 15일 기준 국내 공모주에 일부 투자하는 109개 펀드(설정액 10억원 이상)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평균 1.78%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인 -0.54%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공모주 자체 수익률과 비교하면 기대 이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모주 펀드라 해도 대부분이 혼합형 상품"이라며 "공모주 편입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아 공모주 개별종목보다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 mjk@

올해 상반기 아시아 국가 신규상장 순위
※출처: 세계거래소연맹

순위	건수	거래소
1	45	중국(Shenzhen SE)
2	44	홍콩(Hong Kong Exchanges)
3	26	호주(Australian SE)
4	21	한국(Korea Exchange)
5	19	인도(BSE India)
6	18	일본(Japan Exchange Group – Tokyo)
7	13	태국(The Stock Exchange of Thailand)
8	12	인도네시아(Indonesia SE)
9	11	싱가포르(Singapore Exchange)
10	10	대만(GreTai Securities Market)

유가증권 · 코스닥시장 신규 공모주 수익률

종목명	공모가(원)	종가(원)	공모가대비 수익률
한국정보인증(코)	1800	4,645	158.06
인터파크INT(코)	7700	21,750	182.47
오이솔루션(코)	10000	21,250	112.5
코스맥스(코)	59200	107,500	81.59
BGF리테일(코)	41000	67,400	64.39
KNB금융지주(코)	12000	12,300	2.5
KJB금융지주(유)	11850	11,600	-2.11
캐스텍코리아(코)	6500	11,300	73.85
차디오스텍(유)	14800	3,935	-73.41
트루윈(코)	10500	15,000	42.86

자산운용사 고유재산 6.4%↑
현금·예치금·증권이 대부분

3월말 3조6523억…당기순이익·증자 영향
금감원 "고위험 투자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올해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이 3조6523억원으로 지난해 9월 말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86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은 3조6523억원으로 지난해 9월 말(3조4325억원) 대비 6.4% 증가했다.

이는 주로 당기순이익 발생, 증자 및 운용사 신설 등에 기인한 데 따른 것이다.

현금과 예치금은 1조8304억원, 증권은 1조5164억원으로 전체의 대부분(91.6%)을 차지했으며 각각 지난해 9월 말 대비 9.1%, 4.9% 증가했다.

현금과 예치금의 64.6%는 주로 장기(3개월 이상) 현금성자산에 예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7개사는 현·예금만 보유하고 있으며, 9개사는 지난해 9말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주식의 88.4%는 계열사 지분에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열사 지분의 대부분은 해외현지법인 출자분(4037억원·86.8%)이며 보유주식 평가 손실 등에 따라 지난해 9월 말 대비 1.9% 감소했다.

투자목적 보유주식은 4.1%이며 공모주 청약이나 비상장사 지분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됐다.

채권의 대부분은 국공채, 우량등급 회사채 등에 투자하고 있으나, 국공채 비중을 줄이고 회사채 투자를 늘리는 추세를 보였다.

자산운용사 가운데 47개사의 고유재산이 증가했으며, 39개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재산 1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6개사이며 업계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이 1조1089억원으로 고유재산이 가장 많았으며 삼성(2133억원), KB(1526억원), 신한BNP(1388억원), 한국투신(1163억원), 한화(112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NCR 제도 변경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운용사의 투자 여력이 확대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고위험 자산 투자 등 리스크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lmj@

올 상반기 인수·합병 줄며
주식매수청구 행사액 '뚝'

920억…작년보다 74.8% 감소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 행사 금액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상장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2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3644억원)보다 74.8%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합병(M&A)과 같은 이사회 결의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 주식을 사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한진해운이 영업양도 및 한진해운홀딩스와의 합병으로 각각 720억원, 3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한독은 영업양수로 26억원, 코크렙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만기연장으로 15억원을 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조이맥스가 링크투모로우와 합병으로 55억원의 매수 대금을 지급했다.

올 상반기 주식매수청구 대금이 급감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현대하이스코가 냉연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해 현대제철과 합병한 사례와 같이 큰 규모의 합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예탁결제원은 분석했다.

한편 올 상반기 상장법인 가운데 M&A 등에 의해 기업인수 및 합병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35개사로 지난해 하반기(54개사) 대비 35.2% 감소했다. 증권시장별로 구분하면 유가증권시장법인 17개사(48.6%), 코스닥시장법인 18개사(51.4%)다.

김미정 기자 mjk@

'한전KPS' 증권사 엇갈린 평가

메리츠종금證, 미래에 초점…"주당순자산가치 증가" 목표가 올려
아이엠투자證, 현재에 집중…"주가 상승률 미미" 투자 의견 낮춰

한전KPS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메리츠종금증권은 한전KPS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나 목표주가를 7만2500원에서 8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아이엠투자증권은 투자의견을 종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목표주가는 7만원을 유지했다.

같은날 한 종목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한 두 증권사의 의견이 엇갈린 것은 '시점'의 차이 때문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한전KPS의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둔 데 반해 아이엠투자증권은 '현재' 상황에 집중한 것.

메리츠종금증권은 한전KPS의 2분기 매출액을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3205억원, 영업이익은 6.6% 줄어든 582억원으로 예상했다. 2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820억원, 560억원으로 예상한 아이엠투자증권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지만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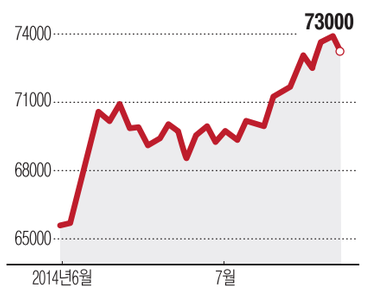
그럼에도 메리츠종금증권이 한전KPS의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한 것은 주당순자산가치(BPS)가 꾸준히 늘고 영업레버리지 효과에 기인한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승철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한전KPS의 향후 BPS가 15%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최소 45%의 배당성향으로 ROE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 매력"이라면서 "2015년은 이미 수주한 요르단 및 우루과이 해외 정비 매출이 추가로 반영되는 원년으로 내년 이익 전망치가 주가에 반영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주익찬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매출액, 영업이익, 주당 배당금 모두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최근 주가가 꾸준히 올라 향후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투자의견을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한전 KPS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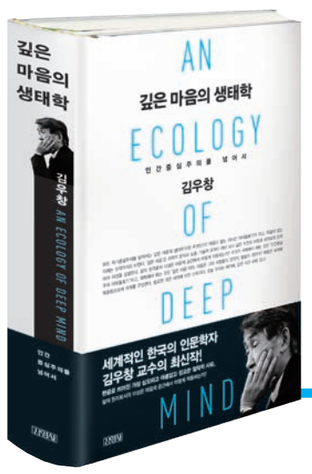


신한금투 법인고객 '동거동락'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법인고객인 '신한 파트너즈' 회원을 대상으로 '동거동락' 이벤트를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신한 파트너즈' 회원사가 주식자산(비상장 주식 포함)을 늘리거나 금융상품(RP, MMF 제외)에 가입하면 사무용 가구 및 전자제품을 지급한다. 한샘 인테리어 상품권, 고급 커피머신, 공기청정기, 스마트 벽걸이 시계 등 푸짐한 경품이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사진제공 신한금융투자

"마음은 그대 사람들의 것인가, 별들의 것인가?" 모든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서는 '깊은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성은 마음의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 인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한국의 석학 김우창의 강철 같은 사유가 펼쳐내는 깊은 마음의 구조에 대한 놀라운 탐구! 문학, 철학, 경제학, 사회학, 수학, 생물학 등을 총망라한 압도적 지식, 눈부신 통찰을 통해 동서양 최초로 '이성과 마음'의 문제를 생생하게 파헤치다. 한글로 씌어진 가장 심오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철학적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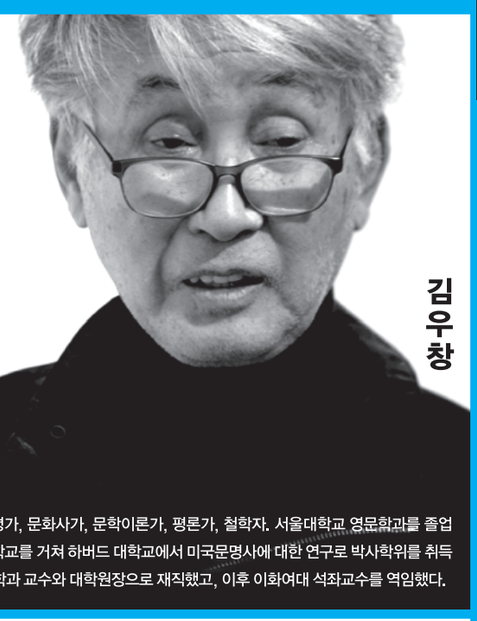


김우창
양장 | 516쪽 | 27,000원

깊은 마음의 생태학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 인 간 중 심 주 의 를 넘 어 서 | AN ECOLOGY OF DEEP MIND



김우창

영문학자, 문명비평가, 문화사가, 문학이론가, 평론가, 철학자.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 대학교를 거쳐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문명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영문학과 교수와 대학원장으로 재직했고, 이후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세계적인 한국의 인문학자 김우창 교수의 최신작!

인간의 이성과 마음, 자연과 세계의 운명을 완벽하게 통찰한 역작! 김우창 교수의 사유 세계는 고대와 근대와 현대가 서로 비추고 질문하고 응답하는 대화의 장이며, 우리의 궁색한 생각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잡이가 되어준 통찰의 등대이다. **도정일**(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 선생의 주옥같은 글들은 한글로 쓰여지는 글로서 이를 넘을 수 있는 수준의 글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글에 담긴 지식과 지혜의 깊이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도 최고의 수준이다. **최장집**(고려대 명예교수) | 이 땅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청년들과 독자들이라면, 김우창이라는 산을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문광훈**(충북대 독문과 교수)

김영사
TEL : 031)955-32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농사짓는다더니… 이홍규 전무 '불편한 효도'

〈이중명 에머슨퍼시픽 회장 아들〉

경기 가평 농지취득 후 2년여만에 에머슨퍼시픽에 팔아 개발부지 이용 논란

에머슨퍼시픽 이홍규 전무(43)가 회사와 땅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무는 이중명 회장의 아들로 에머스퍼시픽 지분 4.04%를 보유하고 있다.

18일 이 전무의 토지거래내역에 따르면 이 전무는 지난 2009년 7월15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고 이를 올해 1월22일 에머슨퍼시픽에 1억8530만원에 매도했다.

이 부지는 2010년 가평군과 에머슨퍼시픽이 예술의 축복지구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 체결 후 올해 2월 본격적으로 착공식을 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산 94의 1번지 인근에 있다.

문제는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지법상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만 가능하기에 편법으로 이 전무가 농지 자격증명을 얻어 소유하다 개발부지로 이용하기 위해 에머슨퍼시픽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년 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에머슨퍼시픽이 개발부지를 취득한 바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5년 6월14일 정정공시에 따르면 에머슨퍼시픽은 경남 남해군 일대 전답을 남해 골프 리조트 사업부지로 이용하기 위해 이 전무로부터 매수했다. 공시에서 에머슨퍼시픽은 "농지 거래 법규상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전에 당사의 특수관계인(이홍규)이 개인 명의로 해당 농지를 매수한 뒤, 당사가 매수 원가로 재매입 계약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에 에머슨퍼시픽 측은 "이 전무가 정당하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얻었고 해당 부지에 있던 밤나무 등을 직접 관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에머슨퍼시픽은 이번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거래를 분기보고서에 누락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0-1-2조는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거래를 한 경우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있다. 본지의 취재 후 에머슨퍼시픽은 17일 분기보고서 기재정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남 기자 bangnam@

더포티스퀘어, 쓰리원 2대주주로

공시돋보기

워런트 행사 지분 10% 확보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체 '더포티스퀘어'가 쓰리원에 대해 신주인수권(워런트)를 행사해 10% 지분을 확보, 2대주주로 올라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더포티스퀘어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워런트행사로 1주당 723원에 쓰리원의 지분 10.01%(221만6024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이준호 최대주주(15.94%, 352만7881주)에 이은 물량 보유분이다. 쓰리원은 지난해에만 4차례나 대표이사가 변경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측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회사로 이번에 워런트 행사로 2대주주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이번에 행사된 워런트는 지난해 6월 쓰리원이 84억원 규모로 발행한 10회차 BW다.

지난 9일에도 워런트가 행사됐다. 쓰리원은 발행주식 총 수의 16.2%에 이르는 308만9000여주가 발행됐다고 밝혔다. 이 워런트 물량은 18일 상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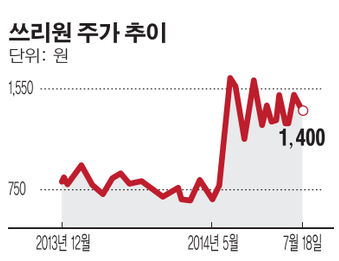
미행사 워런트 규모는 40억원에 이른다. 이 물량 관련 워런트가 전량 행사되면 561만주가 더 발행될 수 있다.

쓰리원은 캐패시터제조를 목적으로 1967년에 설립된 회사로 현재 유류도소매업과 제조업(캐패시터) 사업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CCTV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핫씨씨티브이와 미디어사업을 영위하는 크레아웍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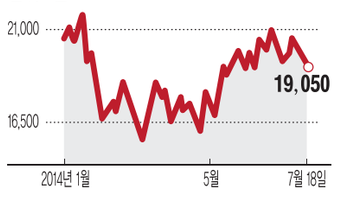
쓰리원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0.3% 감소한 16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부진 및 원가율 상승으로 인해 영업손실 12억원, 지배주주귀속 순손실 19억원이 발생해 전년동기대비 적자지속 상태다.

이미정 기자 lmj @

쓰리원 주가 추이
단위: 원



삼천리자전거 주가 추이
단위: 원



한국항공우주, 3년만에 2000억 회사채 발행

차세대 전투기 사업 성장성·신용등급 상향조정 등 순항

한국항공우주(KAI)가 다음달 2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KAI는 3년만기 2000억원 규모 회사채를 오는 8월 발행할 예정이다.

조달한 자금 중 1000억원은 10월 만기가 돼 돌아오는 회사채를 상환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운영자금에 쓸 계획이다. KAI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2011년 이후 3년 만이다.

KAI 관계자는 "2000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중으로 이사회 최종 승인이 나면 주간사 선정 등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한국기업평가는 KAI의 기업신용등급(ICR)과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각각 'AA-(안정적)' 및 'A1'으로 신규 평가했다.

KAI가 항공 방산부문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형 전투기, 소형무장·민수헬기 등 신규 사업 추진과 수출 확대 등으로 성장성과 안정성 모두 매우 우수하다는 판단에서다. NICE신용평가 역시 KAI의 장기 신용등급을 지난해 A+에서 A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KAI는 회사채발행금리 감소 등의 실질적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형 차기전투기 사업(KF-X)이 본격화되면 향후 20년간 약 30조원이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KAI가 회사채 시장에서 지속적인 자금조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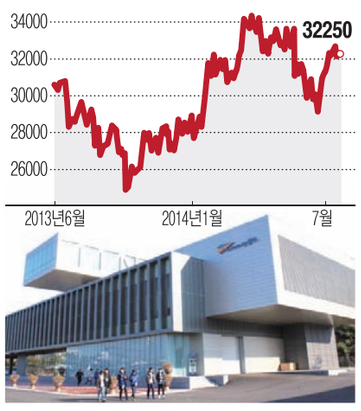
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진주·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과 KF-X 사업 등으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KAI가 지속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KAI의 올해 1분기 FA-50 필리핀 수출과 보잉 B787 기체구조물 수주, A320 날개구조물 수주 증가 및 단가 조정 등의 성과를 내면서 전년동기대비 99% 증가한 289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액 역시 25% 증가한 5032억원을 기록했다.

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작년 3월 2만2000원대를 기록한 주가는 올해 4월 3만5000원을 돌파했고 7월 현재 3만10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김희진 기자 heejin@

한국항공우주 주가 추이



한국주철관공업 '부업 수입' 짭짤

최대주주로 있는 '엔프라니' 2분기 매출 30% 성장 전망

한국주철관공업의 화장품 사업회사인 '엔프라니'의 올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30% 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엔프라니 관계자는 18일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30% 정도 증가했다"며 "정확한 매출 규모를 밝힐 수는 없지만 성장세에 있다"고 말했다.

엔프라니는 지난 2002년 9월 CJ로부터 자본을 완전 분리해 독자 경영체제를 구축한 화장품 전문 회사다. 현재 브랜드샵 홀리카홀리카를 운영 중이다. 엔프라니는 지난해 매출액 624억원, 영업손실 29억원, 당기순손실 29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주철관공업이 지분 51.95%를 보유하고 있고 CJ올리브영이 27.76%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엔프라니는 CJ올리브영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 유통 부분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해 차별화된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어 다양한 판매 채널을 확보 중에 있다.

브랜드샵 홀리카홀리카 또한 사업 개시 후 2년 만에 전국에 60여개의 점포가 개점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엔프라니는 중국 등 해외에서의 성장도 예상된다. 엔프라니는 지난 2008년 중국시장에 진출해 현지 화장품 전문점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은 한류 열풍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아울러 중국 내 일반 화장품에 부과되던 소비세 30%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주철관공업 측은 "대외적으로는 한류열풍과 엔프라니의 우수한 복합기능상품을 기반으로 해외 및 홈쇼핑 채널에서 견고한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실적상승' 삼천리자전거 국내외기관 잇단 러브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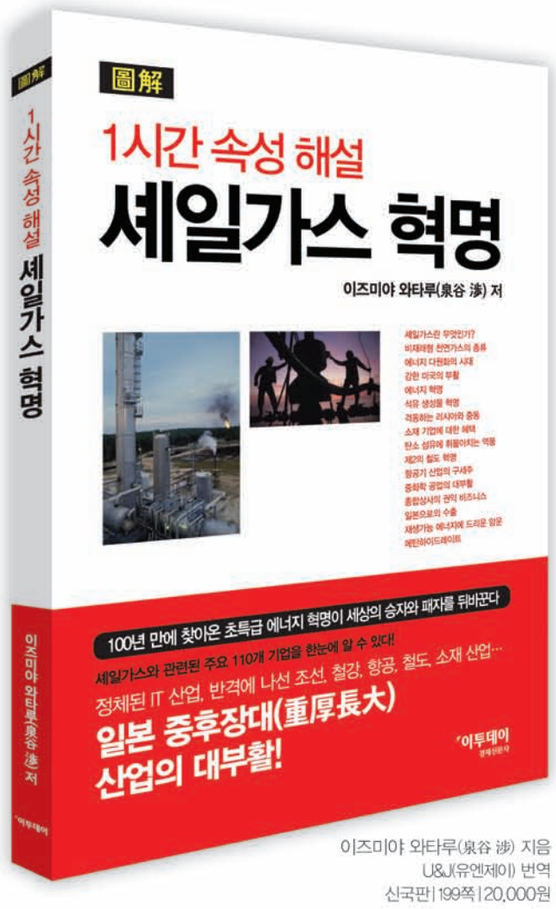
삼천리자전거가 국내외 기관투자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2012년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뒤 실적 상승세를 유지하자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JP모건계열의 JF에셋매니지먼트(이하 JF에셋)가 삼천리자전거 주식 66만7888주를 지난 15일 새로 취득했다. JF에셋의 지분율은 5.03%가 됐다. 이밖에 미국계 운용펀드인 콜롬비아매니지먼트는 지분을 5.11%에서 6.22%로 늘렸고, 인베스트홍콩리미티드는 현재 보유비율을 5.98%까지 높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1분기에 지분을 정리했는데 지난 9일 새로 68만여주를 취득하며 지분율은 5.15%가 됐다.

올해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5% 늘어난 262억9800만원으로 15%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14%, 24% 증가해 21억3501만원과 23억원을 기록했다.

삼천리자전거측은 "국내 자전거 산업은 레저 수요가 늘고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정부의 자전거 산업 육성 정책과 인프라 건설 계획 등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중"이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 @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J(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언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싸울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분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푼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 · 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youngsh@etoday.co.kr

송해 선생님이 돈 맡기는 은행은?

IBK기업은행!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서비스